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69-10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병 무 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병 무 청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 박창명입니다.

옛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먼 인생길에서 ‘혼자’가 아닌 ‘같이’의 가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던 곳이 군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 청춘의 시기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잠시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가족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이 병역의무이지만,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생각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도 우리 병역의무자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자청해서 가겠다고 나선 장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대한사람 대한으로』는 해외이주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병역이 아님에도 그 울타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진짜사나이들의 군 생활 수기집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군복무를 지원한 해외 영주권병사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신체조건을 마음을 다해 치료한 후 당당히 현역복무를 지원한 질병 치유병사들, 병역이행을 선택한 배경과 이유는 각기 다를지라도, 이들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접수된 195편의 소중한 원고에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자원입대를 결정한 것이며, 2년여의 군 복무가 평생의 소중한 재산이 되어 세상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힘이 되었다’는

내용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뜻 깊은 해로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호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원병역이행자의 후회 없는 특별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면, 입대에서 전역까지 건강하게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우며, 숭고한 것임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新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 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선배들의 병영 체험담이 병역이행을 앞둔 병역의무자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병역의 의미를 나누고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자원 병역이행 병사들, 귀한 아들을 기꺼이 조국에 맡겨준 장병 가족들, 그리고 부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병무청장 박 창 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랑스러운 자원병역이행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정두언입니다.

먼저 자원입대를 선택한 당당한 청년들의 군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연일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이
절실한 시기임을 말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접하는 군대 내 부조리 및 후진적 병영문화, 각종 사건사고는 병역
이행을 앞둔 젊은 세대에게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로 이주하여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젊은이가 귀국하여 자원 입영하는
사례나 징병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고도 질병을 치유한 후 현역병으로 자원 입영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고 흐뭇합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한반도의 안전과 발전이 곧 나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자원병역이행을 선택한 젊은 병사들의 모습에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자원병역이행 병사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혹한기 야영, 각개전투, 40Km행군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한 훈련 상황을 수행하면서, 내가 아닌 ‘우리’, 더 나아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병사들의 글에서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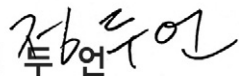
자원병역이행 병사들 모두에게 스스로 선택한 군복무가 사회와 단절되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군대라는 또 다른 사회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단련하고, 보다 성장한 나를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관심 받는 사람들이 솔선하여 병역을 이행할 때 우리 젊은이들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의무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병역이행 병사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자긍심 고취 사업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소중한 불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박창명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병무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사람 대한으로』가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국회 국방위원장 정 두연 

목 차

CONTENTS

영주권 병사 부문

02 발간사 병무청장 박창명

04 격려사 국회 국방위원장 정두언

08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09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최우수상

12 이룩과 착륙 사이에 서다 _ 이우현

우수상

17 뉴욕에서 논산 올 때 알아야 할 것들 _ 천이준

21 뿌리 깊은 나무 _ 정찬교

장려상

25 동쪽에 달을 서풍처럼 _ 이동민

30 6년 만에 지킨 아버지와의 약속 _ 정원재

34 후회하십니까? _ 김동영

39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_ 한성용

입선작

43 진짜 사나이 _ 김준구

47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_ 정재호

51 영주권이 군대 면죄부는 아니니까 _ 이정환

55 인생을 연습하다 _ 송주훈

59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_ 서주훈

63 내 인생 제2막 _ 원서준

67 노블레스 오블리주 _ 최승리

72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자부심은 영원하다 _ 유성현

76 두 갈래 길 _ 홍영옥

80 나의 선택 _ 박현수



질병치유 병사 부문

최우수상

86 나도 대한민국 남자다 _ 최성원

우수상

90 뿌리가 자라는 시간 _ 김강규

94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울 자격이 있다 _ 양정환

장려상

98 노력의 가치에 대하여 _ 김기백

102 내 일생의 전환점 _ 박태영

106 나의 '젊음' 체험기 _ 정성운

110 가짜 시력으로 진짜 군인이 된 사나이 _ 이승원

입선작

113 처음으로 스스로 해본 선택, 자원입대 _ 송경철

117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_ 오진우

120 내가 선택한 해병의 길 _ 김민준

124 신의 아들은 따로 있지 않다 _ 송영규

128 뻘뻘옹 _ 신기수

132 158 _ 오유빈

형제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138 대한민국에 착륙한 두 형제 _ 이우현 · 이도현

142 태평양을 건너온 쌍둥이 형제 _ 심우현 · 심우석

희망메세지

148 영주권 병사

157 질병치유 병사

164 심사총평 한국문인협회 _ 여운동, 최성배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제도 소개

-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진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원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또는 갱신)를 위한 국외 출입국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004년 도입)

신청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사정에 의하여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일 전까지 입영취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 영주권 사본 등 체류자격증명서(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출 생략)

신청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우대사항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가능
-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한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
 - 입영 후 1주간 「군(軍)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 영주권 유지(또는 갱신)를 위해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 방문 시 왕복 항공운임 지원
 - 전역 후 이주국가로 출국 시 편도 항공운임 지원

|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

제도 소개

-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고 나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재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는 제도 (1999년 도입)

신청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신장 · 체중 사유 4급자로 체중 감량자 포함

구비서류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 · 면제신청서)
-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은 제출 생략)

신청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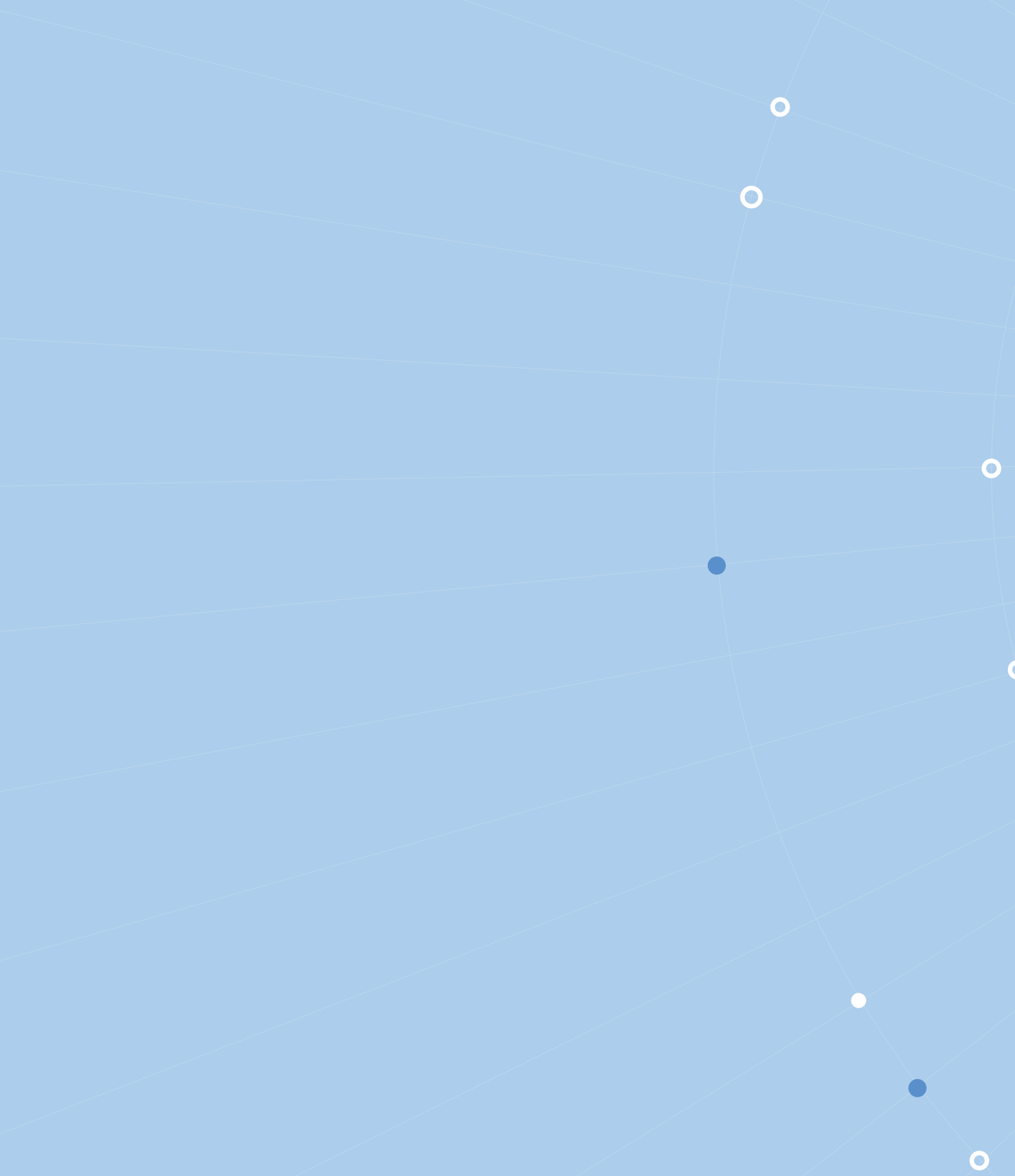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신체검사

-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신체검사 당일 질병치유 증빙자료 지참)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보충역 → 현역 / 제2국민역 → 현역 또는 보충역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영주권 병사 부문

영주권
병사 부문
최우수상

이륙과 착륙 사이에 서다



17사단
상병 이 우 현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저희 항공기는 현재 착륙을 위해 강하를 시작하여 목적지 인천 국제공항에 앞으로 15분 뒤에 도착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지방은 맑은 날씨에...”

익숙한 방송소리가 자고 있던 나의 귀를 간질였다. 가까스로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창밖을 슬쩍 쳐다보았다. 인천항의 푸른 바다를 지나 서울시의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눈 속에 들어왔다. 자주 한국에 방문했던 나였지만 이번만큼 미묘한 기분이 드는 귀국은 없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잠시 동안 들르는 여행지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내가 2년이란 시간 동안 살게 될 곳이 되었다.

나는 영국에서 2년, 중국에서 10년, 홍콩에서 3년, 총 15년을 해외에서 거주한 재외국민이다. 인생의 2/3 이상은 해외에 있었기에 공항에서부터 보이는 한글 간판들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그렇지만 적응해야만 했다. 앞으로 2주 뒤면 나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육군의 일원으로서 복무 하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버스 유리창 너머로 본 서울시의 풍경은 활기가 넘쳤다. 문득 내가 처음 입대를 결심했을 때가 생각났다. 홍콩은 장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게다가 중화권 문화에 익숙해진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다른 청년들과 같이 입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이 내 뿌리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군복무를 무사히 끝마치고 싶었다. 나는 떳떳해지고 싶었던 것 같다.

주위 친구들의 만류는 당연했다. 나의 외국인 친구들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20대의 2년을 군대에 바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민권을 선택해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나의 한국 친구들도 나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다. 나는 대학교 3학년을 끝마친 상태였고, 곧 취업을 준비해야할 시기에 입대를 결심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2014 년 8월 11일, 나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예상대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순탄치 않았다. 익숙지 않은 조직 생활, 엄격한 규율, 그리고 생소한 군대식 말투는 나에게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사실 내 자신이 해외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 치고는 한국말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국에서 살아온 전우들에 비교하면 나는 모 방송사의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샘 해밍턴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나는 계속 되는 실수 속에 의기소침해졌다.

이런 나에게 힘을 준 건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 그리고 내 친동생이었다. 동생은 사실 내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부터, 버스에 탑승하여 유리창 너머로 서울시를 구경할 때도,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까지도 같이 함께 했었다. 같은 날짜에 입대하기로 결심한 우리는 훈련소에서도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친동생과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생활관 속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아무래도 낮간지럽기 때문에 동생과 부대 내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동생이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안심이 되었다.

동기들도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내가 속해 있던 4소대는 전원이 해외 영주권자 혹은 재외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소대 내부에서만큼은 끈끈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훈련소에 입대한 게 엇그제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어느새 수료식이다. 나는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자대배치를 기다렸고, 끝없는 기다림과 여러 번의 이동 끝에 나는 17사단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 전입은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떨어진 온도 때문에 여름에 입대한 나는 그날 처음으로 방상외피를 입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훈련소부터 쪽 함께한 같은 중국에서 온 전우와 같은 소대로 배정받게 되었다. 아, 수료식 때 모든 것이 끝인 줄만 알았건만!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나의 주특기는 4.2인치 박격포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운동보다는 독서를 좋아했고, 몸 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내가 박격 포병이라니. 다시 순탄치 않은 군 생활이 찾아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내 예측은 정확했다. 4.2인치 박격포는 한명이 아닌 여러 전우들이 다 같이 팀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부진한다면 팀 전체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밤마다 주특기 노트를 공부하고 교육시간동안 열심히 경청하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래 전우들보다는 느렸고 어설프었다. 게다가 이등병이라는 위치에서 가장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기에 그 시절의 나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 같다. 안양에 위치한 부대로 배치 받은 동생과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동기들과 선임들의 힘이 컸다. 아무리 힘들어도 동기들과 함께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보냈기에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 선임들도 내가 재외국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줬다. 내가 군대에서 느낀 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핵심은 모두를 함께 끌고 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잘하는 인원들을 우대하고 어리숙한 인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단체생활이기에 하나로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협동심을 요구하는 곳이 군대다. 그 덕분에 나는 남들보다는 느렸지만 군대에 무사히 적응하였고, 지금은 내가 후임들을 포용하고 같은 식구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입대 초반에는 빼앗긴 자유에 대해 불평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간부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당시 소대장님은 군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소대원들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열린 귀로 경청해 주셨다. 한번은 독서를 좋아하는 내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읽은 책 한 권을 바로 빌려가서서는 다 읽으신 후 책의 내용에 대해 대화해 주셨다. 중대장님도 정말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지만, 존경스런 분이다. 그 결과 우리 중대는 사단 포술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중대로 거듭났다. 또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완주한 RCT행군을 생각하면 내가 우리 중대원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하다.

지금은 9개월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이 너무나도 많다. 스스로도 조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국의 군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대견하다.

부대 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가 오고 간다. 비행기 소리가 허공을 가로지를 때 마다가끔씩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한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두근거림을 안고, 누군가는 집으로 되돌아가는 따뜻함을 안고 갈 것이다.

오고가는 비행기들의 이륙과 착륙 사이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땅으로 이륙한 것일까? 아니면 익숙한 땅으로 착륙한 것일까? 돌이켜보면, 이때 내가 가진 감정은 새로운 곳에 대한 두근거림과 동시에 집에 돌아가는 따뜻함이었던 것 같다.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거주한 나에게 한국은 여전히 매일이 새로운 곳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집이기도 하다.

내가 만약 홍콩인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면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는 용기도, 가장 ‘나’다운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일깨워 준 국방의 의무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실에 진정 자부심을 느끼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입대를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말해주고 싶다. 입대는 누구에게나 이륙과 동시에 착륙이라는 것을….



영주권
병사 부문
우수상

뉴욕에서 논산 갈 때 알아야 할 것들



61사단
병장 전역 천 이 준

별 느낌이 없었다. 훈련소 입구 앞 식당에서 갈비 몇 점 안 들어간 멍멍한 갈비탕을 먹을 때만 해도, 나처럼 머리를 짧게 민 1,500여 명의 다른 입대자들을 봐도 난 별 생각이 없었다. “입영장병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둥!”이라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질 때 까지도 난 몰랐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갈게. 금방 갔다 올 거야”라는 인사를 하고 엄마를 끌어안을 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다. ‘아, 나 진짜 군대 가는구나.’ 엄마, 아빠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 나서는 가슴이 탁 하고 막히고 머리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애써 웃어 보이며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2013년 3월 11일, 약 1,500명의 나와 같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설픈 충성을 해 보이고는 부모님께 손을 흔들며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소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불이 꺼진 어두운 생활관의 딱딱한 침상에 누워 취침등을 쳐다보며 훈련소 첫날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게 생생하게 기억 난다. 막막한 내 맘을

우수상

뉴욕에서
논산 갈 때
알아야 할 것들

아는지 모르는지 취침등의 밝은 주홍빛은 몽롱하게 빛났다.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한 달 전 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던 내가 왜 하루아침에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의 한 생활관에 처음 보는 55명의 남자들과 침상 위에 어깨를 맞대고 누워 밤새 취침등과 눈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그때 나이 스물 셋. 일생 동안 이토록 혼란스러운 밤이 있었을까.

열한 살의 나이에 미국 뉴저지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다. 뉴저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미국에 오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였고, 영주권이 있었기에 솔직히 대한민국 병역관련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을 졸업하고 여름방학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가장 친한 친구 세 명 중 두 명이 나와 같은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자원입대를 결정한 것 이었다.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왜 가기로 결정했을까? 나도 가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해답이 없는 질문들은 끊이질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3년 3월 11일자로 나 또한 군대에 자원입대 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을 마친 후 금융업에 종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던 나로서는 3학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았다.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에게 자원입대는 내 정체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였으며,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건아라는 이름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6중대 2소대, 영주권자 소대에 배치된 나는 55명의 다른 영주권자들과 함께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했다. 한 순간에 사회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움직임 하나하나가 명령과 주어진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난 도리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곧 적응했다. 취침시간 전까지는 정말 일본도 마음 편하게 쉴 틈 없는 시절이었지만 정말 보람찬 훈련소 생활을 했다.

61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뒤 난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하였다. 자대로 전입한 첫 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선임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를 연발하기 바빴고, 그 후로 몇 달간은 늘 긴장한 상태로 시간, 주변 사물, 사람을 의식하며 생활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이등병, 일병을 지나 나는 상병이 되었고 2014년 4월의 한 월요일 점심시간, 우리 대대로 자대 배치된 신병 세 명이 우리 테이블로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 신병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듯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관심을 표하게 된다. 쏟아지는 관심과 질문에 긴장한 신병 세 명은 한 손가락 뜯 때마다 선임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기 바빴고, 긴장한 나머지 손가락을 떨어뜨리고 밥풀을 여기저기 흘리는 등 짧은 신병들의 머리털 사이로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입 첫 날의



나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군대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깊은 의문이 들었다. 밖에서 개개인의 삶이 있고, 꿈꿔온 미래, 사랑하던 가족, 여자친구, 하던 일들이 다 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머리가 저렇게 짧게 깎인 채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난 이때 까지만 해도 그 답을 찾지 못했었다.

2014년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있어서 군대 관련 사건사고는 비교적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였다. 늘어나는 정신교육 시간을 비롯해 끊임없는 전투준비태세는 군인들을 많이 지치게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육체적인 피로를 난 굳건한 마음가짐 하나로 이겨냈던 것 같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수록 더욱 더 강인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군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병영이행에 있어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난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나라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 이라면 입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군 복무를 ‘아무나 다 가는 군대’ 라고 폄하하기 보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지키는 일’로 생각의 변화를 조금만 준다면 더 멋진 국군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난 2015년 1월말 컬럼비아 대학교에 복학하여 현재 3학년 2학기의 끝에 접어 들고 있다. 복학한 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간 거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다들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2013년 3월 13일, 영주권자 소대는 실제 훈련 시작 전 한국문화 체험 차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전시관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군복을 입고 조용히 영어로 대화하고 있던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였고, 우리는 여러 나라의 영주권자이며 자원입대 하였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눈물이 맺힌 채로 말씀하셨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우리 나라가 아직 살 만한 나라인가 보다. 고맙네 젊은이.”** 난 아직도 그 천안함 전시관 안에서 느낀 그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의 따스함과 깊은 눈동자를 감싼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날 이후 난 입대에 대한 후회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난 입대한지 3일만에 느낀 그 감정 하나로 21개월 동안 후회없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다.**

영주권
병사 부문
우수상

뿌리 깊은 나무



55사단
상병 정 찬 교

국가, 그리고 조국이란 무엇인가. 요리가 좋아 어린 나이에 무작정 떠난 호주 유학 생활에서 이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한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였다. 그 때까지 나는 내가 사는 국가가 조국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선택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성년이 되었을 때, 나는 특전사 복무를 거쳐 현재 예비군 지휘관으로 계신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아들아, 네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국도 마찬가지다. 네가 살아갈 국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너의 조국은 언제나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뿌리이고 정체성이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나의 국가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고민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지닌 모든 사나이들의 의무인 군 복무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군 복무를 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 그리고 2년 간의 공백. 마지막으로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호주 시민권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가장 나를 두렵게 한 것은 한국 군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었다. 호주의 군대와 달리 한국의 군대는 불안, 속박, 불쌍함,

우수상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동정심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나에겐 한 가지 의문이 언제나 남아있었다. 그렇게 싫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왜 항상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군 생활을 추억하며 술잔을 나눌까? 나는 군 복무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이 말을 통해 나는 군 복무를 결심하게 되었다.

“조국을 위하여 군 복무를 하는데 혜택을 바라면 안 된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헌신이다. 군 복무를 통해 네가 잃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네가 군대에 가서 희생과 봉사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다. 군 복무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비단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그것을 이겨내고, 조국에 헌신했다는 그 사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군 복무를 통해 성장하고 단련되어, 앞으로 네 앞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용감하고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나이가 되기를 바란다. 다녀와라. 아버지는 네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나는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입대를 결심하게 되었다. 5주간의 신병교육대대 생활은 지금껏 내가 경험해 보았던 모든 혼란과 고통보다 더 컸다. ‘처음 홀로 호주에 도착해 적응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나의 생각은 1주차를 보내기도 전에 산산이 깨졌다. 무엇보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 처한 것이 나를 가장 괴롭혔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였던가. 훈련 주차가 늘어날수록 깊어지는 신병교육대대 동기들과의 우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5주 후, 신병교육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께 당당한 모습의 이병 약장을 단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군 복무를 결정하기 좋았다는 생각을 했다.

자대를 55사단으로 배치 받은 이후 나에게 간부식당 취사병이라는 보직이 주어졌다. 군대에서도 꾸준히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단순하게 ‘희생과 봉사만 생각하자.’라는 군 생활 목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나의 21개월 군 생활을 내 요리 실력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자, 공부가 많이 부족해 어려웠던 한식 위주의 요리법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스러워 했던 것 중 하나가 선임병들과의 관계였다. 나보다 어린 선임병들과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예상대로 내가 만난 선임병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하지만 요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 생각보다 더 빨리 선임병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군 생활이 8개월쯤 지났을 때, 사단장님의 초청으로 손님들이 사단에 방문하시게 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전반적인 요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처음 얻은 기회에 나는 호주에서 배운 지식과 군 생활을 하며 얻게 된 경험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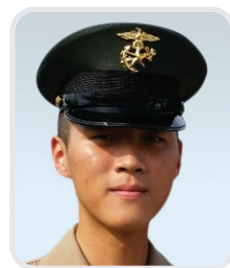
다행스럽게 사단장님과 손님들께서 모두 만족스러워 하시며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고, 이런 음식이 있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내 노력에 의해 충분히 바깥 음식만큼 만족스러운 음식을 군대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과 노력을 인정 받은 것 같아 나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간부식당의 취사병으로 유의미한 시간을 쌓아감에 따라 나의 계급도 이병에서 일병, 그리고 상병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 아래로 후임들도 하나 둘 늘어갔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같을 거란 생각에 후임들에게 나의 경험과 목표를 전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은 나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전우애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기분을 나에게 선사하였고, 이를 통해 조금씩 군 생활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경험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막상 겪어보면 내 생각만큼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경험한 군 생활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유격 훈련과 극한의 추위에서 떨어던 혹한기 훈련,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군장과 함께한 행군은 군 복무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불러왔다. 하지만 나는 이겨냈고 힘들었던 만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성장한 나라면 군 복무를 마친 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를 갖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의 조국에 헌신하자. 그러면 조국은 용기 있게 도전한 자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다른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멋진 선물을 선사할 것이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장려상

동쪽에 달을 서풍처럼



해병대 2사단
상병 이 동 민

2013년 7월 한국으로 가는 길.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가득한 밤하늘을 보면서 무수한 상념에 빠져버렸다. 지난 8년간 모스크바에서 흘러보낸 10대의 아름다운 기억, 꿈이 있던 대학교 생활, 항상 내 곁을 지켜줄 것만 같던 여자친구, 그리고 부모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준비되지 않는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 조국을 지키러 가는 길을 나는 너무 멀리, 그리고 늦게도 돌아서 가게 되었다. 남들 따라 어영부영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어느덧 스물다섯 살, 모두가 입대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걱정이 가득했다.

해외에 살면서 병역을 면할 길도 있었지만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국은 다녀온 곳, 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멋지게 마치고 어른이 되어 돌아오리라 다짐하면서 따뜻한 햇볕이 가득한 7월, 그렇게 나는 열다섯 중학생이 아닌 스물다섯이 되어서야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밟을 수 있었다.

입대를 결정한 후 나이 차이만큼은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검사장

장려상

동쪽에 달을 서풍처럼

한복판,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렇게 검사를 모두 마치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중앙로비에 위치한 프런트 데스크에 쌓여있는 팜플릿 중 하나가 눈에 밟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병대 입대 관련 팜플릿을 손에 틀어쥐고 검사장 문을 나서고 있었다.

‘혼자서 무언가 하나 이루고 싶다’, 이전부터 느껴왔던 강박증에 탈피하고자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매일 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뒤척이다 퍼뜩 전에 가져온 팜플릿이 떠올라 꺼내들었다. 핑계와 후회로 가득했던 지난날들을 나의 선택으로 바꿔보고자 핸드폰을 들어 병무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말처럼 나에겐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바로 헬스장에 달려가 1개월을 끊었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그 다음 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열어보니 합격을 알리는 문자가 당당히 도착해 있었다.

2014년 5월 25일 입대 하루 전, 내 기분은 흥분과 복잡함으로 범벅이 되었다. 부모님과 여자 친구가 한국에 와 있어 외롭진 않았지만, 한동안 이 따듯한 손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금 두렵게 느껴졌다. 붕 떠버린 마음에 다음날 포항까지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를 말리며 버스에 올랐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도착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시큰한 마음에 서둘러 강당으로 입장했다. 한 소대장님의 입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라는 말에 갑작스레 눈물이 핑 돌았다. 각자 자신들의 부모님께 큰절하는 동기들 사이에서 혼자 망설이던 나는 홀로 부모님이 계신 서울 쪽을 향하여 몸을 숙였다. 속으로 수도 없이 ‘죄송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드디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슬픔은 정말이지 한순간에 가셨다. 일주일의 순식간에 지나 낡은 훈련용 전투복을 입은 우리들은 소대장님들의 사각거리는 워커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경직시켰고 갑작스레 황금벨트나 하얀색 하이바가 눈에 들어올라치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 들었다. 첫날부터 들어온 한사발의 옥과 기합의 결과물. 어이 없게도 우리들은 그것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걱정했던 동기들과의 관계도 쉽사리 풀렸다. 한술밥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몇 번 제식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 곁에 없으면 불안할 지경이었다.

해병대 3대 훈련인 유격, 상륙기습 그리고 공수훈련과 갖은 체력단련 등을 하면서 이전의 모습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폭염 아래 매일같이 뛰고 구른 결과 피부는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게으르고 허약했던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유격훈련을 받기위해 3시간 동안 산을 넘어야 했고 15m높이의 훈련용 건물에서 매달려 있어야 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보트를 이고 바다로 나가야 했고, 조금만 높으면 창백해지는 고소공포증 환자인 내가 허공에 줄 하나 매달고 뛰어 내렸다. 그렇게 마지막 훈련인 천자봉 행군 훈련을 앞두고 문득 이제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비오는 밤의 험한 산길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랜턴 하나 의지하여 조심스레 올라가고 있었다. 지난밤의 각개전투훈련 덕에 물이 다 스며들어난 워커를 신고 돌부리와 나무뿌리를 피해가며 몇 시간째 걷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걷다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고 천자봉 중턱에서 잠시 멈춰 섰다. 다들 쓰러지듯 낙엽 앞에 드러누워 쉬는 동안 초코파이와 캔커피를 꺼내들었다. 밖에서였다면 쥐도 안 먹던 이 두 조합은 입에 넣고



장려상

동쪽에 달을 서풍처럼

보니 몇 초 만에 사라졌고 좀비 같은 우리들에게 각성제마냥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어메이징, 그것은 우리를 순식간에 천자봉 정상에 이르게 만들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철수명령이 떨어졌다. 비바람이 너무 강하게 몰아쳤던 것, 우리는 곧바로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 그런데 내게 그만 일이 터져버렸다. 메고 있던 완전무장의 한쪽 어깨 끈이 풀려버린 것이다. 훈련단까지 아직 몇 시간은 더 걸어야 하는 상황, 깃발을 들고 무장 어깨끈을 비둘게 물고 와서일까 발바닥에 강한 통증이 일었다. 한 소대장님께 내 발 상태를 보시더니 앰블런스를 타고 훈련단으로 복귀하라신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우리 5소대 소대장님이 옆으로 오셨다. 우악스레 내 무장을 빼앗아 들고 어깨끈을 묶어주시면서 나에게 “너는 우리 소대의 얼굴인 기수인데 네가 빠지면 훈련단에 도착해도 도착한 게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셨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다시 꼼꼼하게도 어깨끈이 잘 묶여진 무장을 메고 일어나려는 찰나, 갑자기 등이 가벼워졌다. 혼자 일어서기 힘들까봐 뒤에서 살짝 들어주며 베실 웃는 동기의 얼굴이 보였다. 그렇게 나는 훈련단 정문까지 행군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고 우리 소대의 깃발을 들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해병대에 오길 정말 잘 한 것 같다.

말끔히 다려진 정복을 입고 연병장에 정렬하자 주악대의 연주와 환호성이 넘쳐 나왔다. 그리고 눈을 몇 번 돌려보자 바로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을 찾아냈다.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어디 계시나 급하게 찾다가 이쪽으로 달려오시는 어머니가 보였다. 황급히 달려가 껴안고 보니 분명 어릴 때부터 언제나 이렇게 따듯하게 안아주시던 우리 어머니의 향기가 틀림없었다. 이토록 내 생애 행복했던 날은 처음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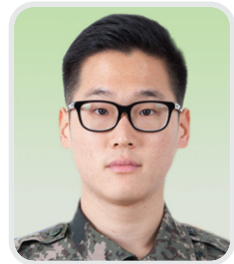
만남은 언제나 짧고 이별은 항상 긴 법. 수료식 날 가족들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들도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다. 나는 서울과 가까운 김포 2사단으로 배치 받게 되었다. 수료식과는 다른 숙연한 분위기. 항상 한 몸이 되어 뒹굴고 웃고 떠들며 정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보기 힘들게 된 현실. 서로 아쉬워 악수를 건네며 지난 일들을 다시금 되새겼다.

김포에 도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한지도 어느덧 1년째.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좋은 선임들과 동기들을 만나 서로 부대끼고 생활하며 만들어진 수많은 추억거리들. 인생에 다시없을 소중한 시간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나와 같이 오랜 해외생활을 하면서 입대를 눈앞에 두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분명 저들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발만 동동 구르다 어쩔 수 없이 논산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해병대에 오게 됨으로써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은 자신감과 체력을 길렀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해병대 고유의 기수제도로 인한 진한 동기애와 역사 그리고 전통 역시 인생에 자부심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자신에게 달려있고 두려움에 대한 극복 역시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무조건 해병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에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달려들 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아주었으면 한다.

언젠가 동쪽에 닿을 서풍처럼 해외에 살던 우리 한국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제2의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안기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장려상

6년 만에 지킨 아버지와의 약속



국군 * * 사령부
상병 정 원 재

참 열심히도 살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부모님 품을 떠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부모님의 투자와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희망하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정도 비쌌던 대학교 학비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신념 덕분에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고, 직장인으로서 또 참 열심히도 살고 있었다.

2014년 1월, 직장생활을 한 지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6년 전 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때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원재야,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중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다. 하지만 아버지와 약속 하나만 해주렴.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꼭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한 합법적으로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더 큰 사람이 되려면 ‘꿀리는 게’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과 나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 성공을 좇아 앞만 보고 달리던 나는 스물여덟 살이 되고 나서야 그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것이었고, 처음엔 혼자서만 고민하다 가족과 더 진지하게 상의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나는 입대를 위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내며 12년의 외국생활에 쉼표를 찍게 되었다.

군 입대 결정을 존중해주고 축하해 주었던 미국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는 달리 한국에 있던 지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며, 왜 굳이 시간낭비를 하려고 하냐며,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속을 제안하셨던 아버지도 많이 아쉬워하셨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인생의 1/3정도를 보낸 나에게 군 입대는 시간낭비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건강한 몸이 있어 모국에 돌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후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2014년 5월 12일 기다리던 입대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차를 타고 논산 육군훈련소를 향해 떠났다. 전날 밤 잠을 설쳐 피곤했지만 조금 있으면 다가올 ‘입대’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 서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정말 잘 한 결정이겠지?’라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다. 논산에 도착해 입소 전 가족과 마지막 식사로 소불고기를 먹고 이용원에서 머리를 밀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소식이 열리는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훈련소에서 내가 속해 있던 소대는 30여 명의 국외영주권자들이 모여 있던 소대였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훈련병도 있었다. 그 친구는 훈련소 분위기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위축돼 보였다. 우리는 서로 앞다퉈 그 훈련병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민간인의 신분에서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시간인 만큼 훈련이 쉽진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전우애’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기다리던 퇴소식 날, 부모님께서 이등병 계급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주시니 이제 정말 나라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된 거 같아 하늘에 던진 베레모처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2014년 6월 27일. 그렇게 나는 국군 * * 사령부로 전입오게 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현행작전을 지원하는 부대로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 곳에서 나는 영어 어학병으로서 주한미군과의 회의·방문 시 통역 및 육·해·공 전군 통신망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격훈련에서는 조교로서 부대원들의 훈련을 도울 수 있었고, 자매결연 부대원들이 유격훈련체험을 위해 방문

했을 때는 화생방훈련 담당 조교로서 영어로 훈련을 통제하는 기회도 있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민간인으로서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생활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군인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나의 가장 큰 특기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13년 전 유학을 처음 떠날 때 미국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성인이 되면 꼭 조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치 예행 연습처럼 미리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오느라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군 생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시간’을 꼽는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군복무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는 일이 나의 개인적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역하는 내년이 되면 나는 서른 살이 된다. “늦은 나이에 전역하면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는 주변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더 준비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때가 기다려지고 기대된다.”고 답한다.

많은 현역 장병 및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전역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21~24개월 동안 내가 멈춰있는 게 아닌가?’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전역 후 여러분은 분명히 입대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있을 것이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용수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장려상

후회하십니까?



7포병여단
상병 김 동 영

군대를 가는 것은 젊은 시절의 2년을 빼앗기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리고 나는 절대 군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에겐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자 동기들이 하나 둘씩 입대를 시작했다. 입영할 때 배웅을, 휴가 나오면 위로와 격려를, 또 전역하면 축하를 함께 해주었다. 동기들은 예비군 소집을 가기 시작하였고 후배들도 전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젠 더 이상 군인아저씨가 아닌 군인 동생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하였다. 신학에서 전공을 바꾸어 간호학과 3학년으로 학사편입을 하였다.

스물여섯, 난 졸업을 또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젠 선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진 나는 가끔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처럼 뒤도 안돌아보고 태평양을 건널 것인가? 사실 21세에 카툰사에 지원을 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세 가지 공인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했지만 뽑히지 않은 것이 억울했다.

통역병으로 지원할까 하여 통역병 어학원을 등록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처럼 영어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렇지 않다면 의대나 법대를 재학 중인 엘리트 집단이었다. 나는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곳에서 난 영어도 한글도, 통역도 번역도 가장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그렇게 두 번째 입영 시도도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졸업생으로서 의무병으로 지원을 하려 한다. 2014년 1월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에 육군 의무병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는 합격을 확신하였다.

주위에서 항상 입영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삼국지나 위인전에 나오는 장군이나 군사는 멋지고 위대한데 왜 대한민국 지키는 국군은 이렇게 하급평가를 받을까?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이 그렇게 괴로운 것인지. 그래서인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하여 입영을 시도한 것 같다. 절대 군인이 되지 않겠다던 결심에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의무병에 지원하여 당당히 합격을 했다. 3월 10일에 태어난 나는 2014년 3월 10일 입영예정 통보를 받았다. 수차례 시도 끝에 나는 나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에 논산 육군 훈련소 입소에 성공했다.

입대 당일 훈련소로 출지어 걸어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께 손을 흔드는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목격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왔다. 자원해서 입영하겠다고 하였을 때 무뚝뚝하게 “알겠다.”라고 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내심 걱정이 되시나 보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계속 올라왔지만 나는 끝까지 부모님을 향해 웃었다.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분위기가 살벌

해졌다. 발맞추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호령이 떨어진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어로 명령이 내려진다. 그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밥을 먹고 이상한 잠자리에 누웠다.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나는 나만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 하라는 것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지 말자. 둘째, 해야 되나 싶으면 하고, 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이기적인 생각과 습관을 버리자. 이 원칙들을 지키며 적용하자 나는 각종 훈련과 수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상점을 휩쓸어 전화포상도 여러 번 받았다. 우리 분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합이 되었고 매일 아침 국기계양을 하며 부르는 애국가에 나의 가슴을 애국심으로 불태웠다. 그렇게 훈련소를 수료하였을 때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닌 이등병 계급장을 가슴에 붙이고 그리웠던 가족과 재회하였다. 단 한 번의 열외 없이 모든 과정을 거쳐낸 나는 스스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다.

의무병과 후반기 교육을 위하여 국군의무학교로 이송되었다. 버스 하차와 동시에 군기 확립을 위한 열차려가 부여되었다. 이제 조금 적응했나 싶었는데 다시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내 포레가 많았다. 우리는 군에 늦게 입대한 서로를 보며 위로를 얻고 격려하며 의무병과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였다. 기차에 탑승하여 수도권 쪽으로 향했다. 이동 중 기차에서 처음 먹어 본 전투식량이 생각보다 맛이 좋았다. 창밖으로 한강, 63빌딩, 서울숲 등 낯익은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립다.’라는 생각조차 잊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남은 19개월의 군 생활을 어디서 하게 될지 함께 노심초사하였다. 나의 자대는 7포병여단이다. 입대하기 전에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다.

내가 배치된 대대는 영외에서 훈련 중이었다. 막사에는 잔류하며 경계를 서는 최소한의 병력 밖에 남지 않았다. 막사는 고요하고 평온했다. 잔류 병력은 대부분이 동기들이었고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바짝 긴장하고 왔지만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와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나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나의 복무희망지역이 반영된 것이 틀림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복무기간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막상 내가 군에 와보니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행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려 와서 하고 있으며 도망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박탈당했으니 괴로울 수밖에. 그런 점에서 나는 다르다. 나는 내가 선택하여 이곳에 왔다. 나는 여기에 있기에 자유롭다. 훈련소, 국군의무학교, 306보충대 그리고 자대에 와서도 반복적으로 받은 질문이 있다. “군대에 온 것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군 입대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지금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이종국적을 소유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가슴 펴고 말할 수 있는 병장 만기 전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부대 의무대에는 의무병 4명과 의무부사관 1명이 편성되어 있다. 나는 이곳에 오자마자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맞이했다. 최고 선임병사는 전역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두 번째 선임병사는 필리핀으로 해외파병을 지원하고 떠났다. 맞선임은 축구를 하던 도중 넘어져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 그리고 의무 부사관은 교육과견으로 앞으로 3달 이상 부재중일 예정이었다. 나는 자대에 도착한지 두 달 만에 홀로 남게 되었다.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갓 일병 진급한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전역한 선임에게 계속 사과하며 문의전화를 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옆 대대 의무대를 방문하여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배웠다. 남겨진 자료를 뒤져가며 행정업무를 익혔다. 그렇게 무너질 뻔했던 의무대의 기둥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냈다. 약 50일 이상을 홀로 군의관을 보좌하며 의무대를 지켜냈다. 지휘관님들과 동료 병사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과정은 혹독했지만 마지막에 얻어낸 열매는 매우 달았다. 값진 경험이었다.

군 복무기간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인생의 쉼표이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간이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잘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어낸 사례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러한 시간을 한자와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독서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군대에서 독서하는 습관 한 가지만 들여도 성공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가 될 것이다. 나 역시 대학생 부터 시작하여 농사꾼, 회사원, 격투기선수, 축구선수, 가수 등등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병영생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병영생활은 과거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시설도 깔끔하고 편리하며 병영내의 부조리는 찾아볼 수 없다. 폭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뿌리뽑으려는 간부님들의 노력을 매 순간 찾아볼 수 있다.

“군대에 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아직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군대에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장려상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3기갑여단
일병 한 성 용

2014년 11월 4일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업고 102보충대 입구를 통과하였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가벼운지 그 때 처음 알았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의 감정은 내가 군복무를 결심하며 가졌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큼이나 무거운 감정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군 복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충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 품을 떠나, 대한민국의 품을 떠나 낯선 땅 중국에 소재한 중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중국으로 처음 떠나는 초행길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나는 정말 용감했던 것 같다. 중국 상하이 푸둥 공항에 도착해서 학교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학교로 이동하였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그렇게 혼잡한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로 상해 외곽 길을 달려 푸둥 지역에 있는 학교에 도착하였다. 기숙사 방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침대, 그 위에 모포보다 얇은

장려상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불 한 장, 베개 하나, 담요 한 장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사물함 겸 옷장이 있었다. 이 열악한 환경에 나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던 여건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중학교 과정 3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은 추억이 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하고 싶은 생활은 아니었다. 아침에 6시에 기상하여 운동장에서 체조 후 땀걸음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수업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고 쌀 과자와 물로 끼니를 때운 채 저녁까지 수업을 받았고, 저녁식사 후 자습시간이 끝나면 취침을 했다. 3년 동안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렇게 중학교 때 고생을 하고 나니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생활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국에서 3위 안에 드는 절강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4년의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 자원하여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

102보충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한 후 약 1천여 명의 장병들은 강당으로 이동하였다. 강당에서 생활관 분류를 하고, 주특기를 부여받은 후 조교들의 인솔에 따라 막사로 이동했다. 처음 막사에 들어섰을 때 마냥 신기했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봐 온 침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군대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102보충대에서 3일 간 물자들을 받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36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했다.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후 우리는 막사 앞에 모두 모여 5주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될 중대장님, 소대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조교님들을 마주하였다. 그 분들의 위엄 있고 각이 잡힌 모습, 내가 생각해 오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였다. 막사 앞 작은 사열대에서 중대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각 소대 조교들의 인솔 하에 막사로 이동하였다. 약 36명의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울릉도 등 대한민국 팔도에서 올라온 동기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다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살아온 방식도 다른 친구들인데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대한

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주에는 정신교육을 받고 집총제식을 배웠고, 둘째 주에는 영점사격과 기록사격을 하였다 셋째 주에는 유격체조와 화생방 훈련, 수류탄 교육을, 넷째 주에는 각개전투와 국지도발 대비 작전 훈련을 하였다. 마지막 주, 행군과 수료식을 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입대 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 또한 그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신병교육대에서 5주 동안 교육받고 훈련 하며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에서는 ‘힘들면 포기하고 다른 길 해야지’라는 정신으로 지내온 반면, 군대에서는 포기란 없고 안 되는 일은 없다. 나 혼자 못한다면 내 옆의 수많은 전우들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서 우리 2중대 2소대 전우들은 뜨거운 눈물을 나눈 후 각자 배치 받은 자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전역해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나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3기갑여단에 오게 되었다.

자대는 신병교육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모두가 동기이지만 이곳은 계급구조가 확실하다. 이제 막 이등병의 계급장을 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의 군 생활은 시작되었다. 처음 자대에 도착하여 나는 대대장님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신병교육대에서의 중대장님과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다. 대대장님은 마치 ‘비호’와 같았다. 대대장님은 우리 부대는 항상 승리하는 부대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 말은

자대로 전입을 온 이후 한 번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 대대장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한 마디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선임들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전부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인 나를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전우들이었다. 오랜 중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모든 것이 어색하던 내게 먼저 다가와 주어서 빠르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참가한 훈련은 바로 흑한기 훈련이다. 훈련 전 물자 준비 및 장갑차 정비부터 텐트를 치는 연습까지 모든 것이 내게는 낯설었다. 우리 부대는 기계화 부대이기에 장갑차를 통해 부대 이동을 한다. 어두컴컴한 장갑차의 보병실에 탑승하여 3시간을 이동하여 훈련장에 도착했다. 훈련장에서의 첫 끼는 바로 전투식량이었다. 자체 발열 팩을 통해 음식을 익히는 전투식량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렇게 나는 군대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훈련 3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누워서 밤하늘을 보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자리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벌써 자대로 전입온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나는 일병으로 진급했고 군 입대를 결심했던 그 초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군대에 대한 불신, 불안감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전역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인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중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신을 알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이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진짜 사나이



9사단
일병 김 준 구

전직 군인이셨던 우리 할아버지의 휴대폰 벨소리는 ‘진짜 사나이’이다. 할머니께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민망하다고 하시지만, 나는 할아버지께서 아직 본인의 군인정신을 잊지 않으신 거라 생각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 군대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왔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지키기 위해, 한국남자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쌓기 위해, 등등. 하지만 내가 군대에 오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이다. 약 9 개월간 군 생활을 한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군대는 내게 급박함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법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의 뜻을 펼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교육중대 행정병으로서의 군 생활은 겉으로는 매우 ‘정적’이다. 조교들이 밖에서 훈련병들을 교육할 때 나는 행정실안에서 그들의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타부서와 상급부대에 제공한다. 그 외에도 대대에서 요구하는 많은 문서들과 자료들을 상신하고 간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보내준다. 그러다보면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게는 다섯 개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다.

입선작

진짜
사
나
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다. 중대에 나와 보직을 같이하는 인원이 없었기에 내 고민을 공유해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해 선임에게 혼날 때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미움이란 것이 참 어리석은 것임을 알면서도 나를 장악하는 그 감정을 떨쳐내기가 힘들었다. ‘이 정도 스트레스에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남을 미워하는 나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

그 당시 행정실의 내 작은 자리에서 혼자 꿈해있던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타 중대의 행정병들이었다. 1중대로 전화를 걸면 어색하게 전화를 받는 낮선 목소리, 그런 내 서툰고 어색한 목소리에게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자비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참모부에선 신병인 나를 배려하여 이런저런 서류들의 데드라인을 좀 더 여유 있게 늦춰주었고, 타 교육중대에선 계속 이어지는 내 질문들이 귀찮고 짜증났을 법 한데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다. 무엇보다 웃음으로서 실수한 나의 민망함을 감싸주었던 그 목소리들을 나는 아직 기억한다. 그것은 여유였다. 압박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여유와 배려. 여유가 있을 때 주변을 살피라.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라. 그러면 네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고 누군간 너를 위해 웃어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군대에서 배운 ‘압박함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법’이다.

일병이 되고 두어 기수의 훈련병들을 거치고 나니 나에게도 그런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전화상으로만 알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얼굴로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대대에 점점 친한 사람들이 늘게 되었다. 타 중대의 부탁들을 나의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옆 중대의 인사행정병이 전역하자 그 부사수가 나에게 와 내가 했던 질문들을 똑같이 한다. 대대로 처음 전입해 온 이등병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긴장 가득한 얼굴에 웃음을 지어주기도 한다. 사람 알아가는 재미가 내 군 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여전히 업무가 쌓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배우가 될 소질이라곤 전혀 없는 나의 얼굴에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질타 대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선임들, 어느새 대대에 적응하고 일병 약장까지 달고 있는, 내가 처음 인사 건넸던 한 때의 신병들이 나를 위해 웃어주기 때문이다. 고맙다.

군대는 또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의 뜻을 펼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행정병인 내 보직의 특성상 간부님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업무가 많다. 근무조 편성, 휴가 접수, 교육훈련 일정 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행정보급관의 승인 혹은 해당 교관의 지시가 있어야 완료된다. 하지만 나만 바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기의 임무가 있다 보니, 일에 몰두하고 있는 간부님들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다가서는 것이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니다. 휴무일 통제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본부 중대 행정병들의 말에 난 항상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중대장님 결재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남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난 나처럼 소심한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남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또 미움 받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내가 배운 건 ‘예의



바르게 조르는 법'이다. 결재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조용히 해당 간부님의 옆으로 가 경례를 하고 선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혹은 내가 주는 눈치에 못 이겨 말한다. “뭘데, 가져와 봐.” 그러면 난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드리면서 말한다. “소대장님, 다름이 아니고 다음 주에 계획된 수류탄 훈련이 언제 어디서 실시되는지 여쭙보려고 왔습니다.” 중대의 간부님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수법은 매번 통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맡은 임무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이들과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세상에 나온 나의 삶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거슬릴지라도 나의 의견들을 말하며, 내가 믿는 바를 이룩하며, 굳건히.

지나간 생애 연연하지 않고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만족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언젠간 지나갈 것임을 알고 다음 생애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 이것 또한 군대에 와서 배운 것이다. 나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기억해줄 전우들, 내 영혼의 격을 높여줄 경험들을 만들어가며 군 생활을 마치고 싶다. 전역후의 삶 속에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기위해. 프랑스 작가 앙드레 고르는 그의 글 「늙어간다는 것」에서 성숙해져감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에 있음으로써 다른 아무 곳에도 없음,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고, 앞으로 1년 동안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이 신병교육대대가 내겐 나의 삶을 맞이할 장소이다. 지금은 이 삶에 집중하며 그가 주는 성장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때이다. 그게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이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4284부대
상병 정재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생전에 <동아일보>에 기고하여 동포에게 고하는 글,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인생의 상당 기간을 머나먼 이국땅 영국에서 생활하다 자원 입대한 영주권 병사로서 오랜 기간 고민해온 ‘나는 왜 군 입대를 선택했는가?’에 대해 논하고 내 생각을 나누기 위해 가장 알맞은 질문이 아닌가 싶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과연 주인인가 여인인가. 한번 사는 인생, 나는 시시한 내 몫을 챙기려 여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군 복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입대하기 전엔 깨닫지 못했다. 육군훈련소 연병장에 모인 수많은 짧은 머리의 청년들. 가족들, 친구들과 작별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했던 청년들이

입선작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있었구나. 잠시나마 군 입대를 망설였던, 자원입대라며 남들에게 온갖 생색을 내며 가족에게는 투정을 부린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오지는 않았는가. 전쟁이 나면 우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군인이고, 임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도 군인이다. 그렇기에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한다는 고백이 아니던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에 대해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한국인의 핏줄이 흐르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 유족들의 아픔일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전, 조국이 위협에 처하자 우리의 선배들은 몸으로 탱크를 막고 학생들은 펜 대신 총을 들었다.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역사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조국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묵묵히 총칼을 들었던 것이다.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호국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한국인의 핏줄로 태어난 이상, 법적인 병역의 의무는 없더라도 도덕적 의무와 무거운 마음의 빚 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진정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이들과 지금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 아닐까.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 중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매일 부국강병의 길을 걷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킬 것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위협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그 무엇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내가 자란 영국에서는 국난을 당했을 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병역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몇 해 전 英 왕실 서열 4위의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교전 지역에서 비밀리에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모병제인 영국에서, 왕자도 자원 입대해서 전쟁터로 직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내가 수학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많은 선배들 또한 전쟁터에 자원해 나가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매년 대학에서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이름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기억하고 불러주는 나라. 영국이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오늘날에도 세계 무대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격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만한 정신적 자세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새겨두고 배워야 한다.



입선작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나라를 지키려는 자가 나라의 주인이로다.”

온갖 편법을 쓰며 ‘돈 벌 땀 한국인,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 행세를 하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주인인가 여인인가’에 대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지키려는 자가 나라의 주인이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과연 주인인가, 여인인가. 한국인의 핏줄로 태어난 것에 대한 특권은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반면, 한국인으로 태어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회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상무정신이 없는 국민이 총칼만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낸 적은 없었다고.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대의를 인정하고 분골쇄신하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상무정신으로 충만할 때 국가의 안보태세는 확립될 것이다.

조국 수호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우들. 그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에 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시기를 군과 국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히 감사하고 내가 선택한 길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진정, 다시 선택지가 주어진다 해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원입대를 선택할 것이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국가의 운명이 나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각오로 자원병역 이행에 참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 짧은 25년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영주권이 군대 면죄부는 아니니까



국군 * * 사령부
일병 이 정 환

한국에서 유학 때문에 미국을 가고, 다시 군복무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나는 서로 다른 질문을 받았다. 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질문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시 생각해 보고 남은 군생활의 버팀목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2010년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수능성적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국에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은 UC Berkeley라는 명성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하나 같이 물어 보던 질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처음 들은 질문이다. “너 군대는 언제 가게?” 참 막막한 질문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운 좋게 영주권이 생기고 나니 과연 군대를 언제 가야 하는지, 혹은 꼭 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곧 나는 군 입대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

입선작

영주권이
군대
면죄부는
아니니까

있을 때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들 때문이었다.

영주권이 생겨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나이였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신성한 의무이며 그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장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바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결심은 자연스레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되어 버렸다. **그 질문이 바로 “넌 영주권 있는데 왜 군대가냐?” 였다.**

학교 공부를 오래 한 탓에 남들과는 다르게 좀 더 늦은 나이인 스물 넷에 입대를 하게 되었다. 이왕 자원 입대한 마당에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더 군인같은 군인이 되어 제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입대를 하였지만 역시나 군대란 쉬운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소에서 느끼게 되었다.

2010년 10월 6일 영주권병사 입영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아들이 되기 위해 입대를 하였다. 영주권병사 입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에는 전쟁 기념관과 천안함을 견학하였다. 아마 영주권자들의 조국수호 의지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입대 전에 가지고 있던 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열심히 해 보겠다면 의지가 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 진짜 신병교육은 미국에서 오래 자취 생활을 해오던 나로서는 견디기 힘든 족쇄들의 연속이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점호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다. 그러나 그 족쇄를 이겨내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면 나와 같이 입대한 동기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나서부터는 점차 개인이 아닌 우리를 위한 행동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미래에 내가 가져야 할 큰 덕목 중에 하나를 배운 것 같다. 사회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내가 포기해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입대 전에 결심한 누구보다 더욱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한 그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싫어 묵묵히 훈련소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와 같은 날에 입대하여 모진 훈련을 이겨낸 동기들이 참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때 함께 훈련소 생활을 한 동기들은 모두 자원입대한 영주권 병사들이었다. 모두 각자 나름의 결심을 가지고 군에 들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간혹 힘든 훈련들을 마치고 나면 입대 전에 가졌던 결심들이 흔들리던 날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와 같은 환경에 놓인 동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결심은 다시 꺾이지 않게 세워지곤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자신의 거울로 삼아 훈련소 기간을 끝내고 뿔뿔이 흩어져 나라가 부여한 각자의 임무를 맡으러 자대에 배치받게 되었다.

벌써 자대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운용병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선 지도 반년이 다 되었다. 미국에 있을 때 딱히 학교 공부 외에는 사회경험이 없었던 나로서는 통신소에서 해야 하는 모든 업무들이 처음에는 두려웠다.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하였고, 오히려 그렇게 긴장을 하며 업무를 하니 보니 종종 빼먹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물들은 항상 나를 배신하였다. 의욕이 없어지고 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군에 있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보다 더 힘든 보직을 부여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동기들과 전국의 군인들을 생각 하니 나의 고민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다. 누구나 헤쳐 나갔을, 아니면 헤쳐 나가야 할 그런 기로에서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선임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며 재빨리 주특기 공부를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는 사이 어느 새 선임들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져 이제는 서로를 믿고 야간 근무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직 군생활의 반도 넘기지 않은 시점이지만, 군대에 있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쓸모없을 수도, 혹은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계속 공부만 하고 직장에 취직하였으면 경험해 보지 못할 것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많다. 군대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다.** 지금 군대에 있는 동안 스쳐간 모든 인연들은 하나같이 학교를 벗어나 있다. 그들이 장차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학교 선후배들보다는 더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술자리에서 만나 부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본다.

나는 학교를 다닐 적에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평가를 하였다. 솔직히 그런 형들의 모습이 부러워서 입대를 결정한 마음도 없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이 아직 덜 성숙하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무계감이 없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후임들이 좀 생기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무계감을 가진 그런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래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

군대란 대한민국의 모든 남아들이 오는 곳이 맞기는 하나 그 모두가 제대로 멋진 모습으로 제대하는 곳은 아니다. 특히 해외 영주권 취득자 혹은 시민권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란 결코 쉬운 곳이 아닐 것이다. **극복하기 힘든 언어장벽,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구속받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 등.** 그러나 이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못해 낼 것도 없는 곳이 군대라고 굳게 믿는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인생을 연습하다



17사단
상병 송 주 훈

스물다섯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하겠다는 나의 손을 잡으시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국으로 이민 가면 널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자기 발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 주훈아.” 어머니는 한국 군대가 마냥 힘든 곳이며, 인생 중 21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나 또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매스컴에 비춰진 한국 군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의 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아온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과연 한국인인가?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다면, 나는 아무런 아쉬움 없이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결국 나는 휴학을 한 후 나 자신에게 21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나의 정체성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가 마주하게 된 당황스러운 현실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입선작

인생을
연습하
다

할 수 없어 늘 주눅 들어있던 나에게 한 친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북한? 남한?’ 이라고 되물었다. 이 뜻밖의 질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언짢아진 나는 화를 버럭 내며 남한이라고 대답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와 IT 강국 등,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 사건은 큰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한동안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영어가 익숙해질수록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인종의 용광로’ 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는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이 자신을 미국인이라 소개해도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 번 ‘한국인으로서의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입대 후 휴바닥에서 땀겨우 흘리며 훈련한 시간도, 실전 전투 훈련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전시 상황에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본 경험도 나에게서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

사실 처음 입대를 결심했을 때에는 카투사나 어학병사로 입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다. “육군에 자원입대 전형이 있는데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군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모른 채 입영 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입대 후 이 선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군 복무 중에는 꿈쩍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할 줄만 알았던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현재 까지 정기 휴가에 미국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자원입대 제도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땅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해외 영주권자들을 위해 복무 희망 지역을 고려해주는 제도로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먼저 함께 훈련소에 입소하여 함께 지내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특히 군대에서 꼭 알아야 할 예절과 기본적인 규칙을 배운 덕분에 다른 훈련병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군 생활의 첫 걸음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자원입대 제도의 이와 같은 배려는 한국 군대에 대한 나의 막연한 선입견을 지우고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처럼 그 속에 수월하게 녹아들 수 있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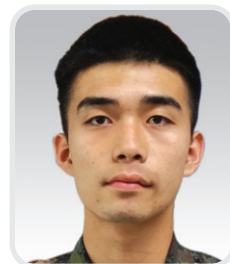
6개월 정도의 복무 기간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자원입대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군대 밖에서 21개월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쯤 학업을 마치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이미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군대에 입대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인생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청년들은 가질 수 있고, 나와 같이 미국에서 자란 이들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쟁력은 바로 군대라는 ‘사회의 축소판’에서 사회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출신, 학력, 외모 등 타인을 판단하는 모든 잣대 혹은 특권을 버리고, 누구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등병일 때에는 선임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고,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는 일병과 상병을 지나, 아랫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르칠 줄 알아야 하는 병장에 이르기까지 장차 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역할을 순서대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부대 내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은 나에게 다양한 교훈을 남겨주었고, 어느새 선임들과 후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원입대는 나에게 사회에의 적응을, 나아가서 인생을 연습해볼 수 있는 소중한고도 유일무이한 기회를 선사해 주었다.

꾸준히 연락하고 몇 달에 한 번은 휴가 기간 동안 얼굴을 뵙기도 하여 나의 변화를 가장 잘 아시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마냥 걱정이셨던 어머니께 이 글을 쓰기 전 전화를 걸어 여쭙보았다. “어머니, 제가 자원입대해서 보낸 여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아직도 어린 제 손을 잡고 이민을 갈 때 가지고 계셨던 군대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크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솔직히 저 잘난 것만 알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챙길 줄도 모르고, 사회 경험도 부족했던 너에게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대답에 웃으며 투정도 부렸지만, 가족도 그렇게 느낄 만큼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어리석은 개구리와 같았던 내가 자원입대를 선택함으로써 얻은 수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되찾은 애국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 될 것이다.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께 다시 한 번 여쭙 보았다. “어머니, 그럼 혹시 Timothy(8살인 나의 남동생)도 한국 군대에 보낼 생각이 있어요?”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은 내 예상보다 더 호쾌한 것이었다. “그렇까? 엄마는 이제 아들 군대 보내는 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제9보병사단
상병 서 주 훈

인생은 흔히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며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제 갓 20대에 접어든 나에게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시기가 왔다. 2014년 4월 8일, 나의 선택은 의정부의 306보충대였다. 입대 전 날, 긴 머리를 3mm로 자를 때 나는 오히려 덤덤했다. 입대 당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의정부에서 제일 유명한 부대찌개 집으로 데려다 줬다. 여태껏 먹어본 부대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다. 그릇을 똑딱 비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다. 여태껏 먹어본 부대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다. 그릇을 똑딱 비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다. 시계는 찬찬히 흘러가 입대 시간이 다가왔고 의정부역에서 택시를 타고 306 보충대로 향했다.

그동안 나는 군에 입대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일본, 복수국적으로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서주훈(徐柱訓)',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타츠노리(中村柱訓)' 라는

입선작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름을 갖고 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먼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때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난 안 간다.”고 답했다. 어느 날, 병무청 홈페이지에 ‘재학생 입영신청’이 있는 것을 봤다. 친구는 내게 한번 눌러보라고 했고 마침 ‘2014년 4월’에 남은 자리가 얼마 없어 덜컥 ‘선택’을 눌렀다. 그 후 일본 여행을 갔다 오니 집에 입영통지서가 도착했다.

‘군대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입대 연기를 생각하던 때,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신이 복무했던 비무장지대 GP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다. 밤중에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 임무를 맡았던 아버지는 가까운 숲 속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 북한군인가 싶어 침을 꿀꺽 삼키고 은밀히 접근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고라니가 도망가는 소리였단다. 하지만 나는 당장 이 말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16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에서 살다 온 탓에 한국의 조직적 문화나 서열이 익숙하지 않았다. 거기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에 건너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것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개인주의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 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아 ‘나는 나, 남은 남’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했고 나 자신도 여러 번 고민했다. 이런 내가 군대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여러 번 걱정했다.

사실 군 생활이 7개월 정도 남은 지금 돌이켜보면 입대 후부터 생각이 잘 나질 않는다. ‘조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신병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사뭇 위압감을 느껴졌다. 선글라스를 끼고 부대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검은 티셔츠를 입는 조교들은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보다 멋있고 강하다는 인상이 머리에 새겨졌다.

화생방 때는 방독면을 제대로 쓰지 못해 침과 콧물을 계속 쏟아냈다. 각개전투 때는 포복을

열심히 해 전투복 하의가 찢어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개인정비 시간을 이용해 수양록에 담았다. 지금도 그 수양록을 보면 종교 시간에 어떤 과자를 받고 연휴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가 쓰여 있는데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것들조차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다. 우리 소대를 맡았던 조교는 나를 ‘낙타’라 부르며 아껴줬다. 행군으로 힘들어할 때도 “와, 낙타가 군장을 메니까 진짜 혹 붙은 낙타 같네.”라며 농담을 건네줬다. 감사했다.

수료식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줄줄 쏟아졌다. 입대 전에는 항상 환한 미소의 부모님이 그 짧은 사이 얼굴에 주름살이 핀 것을 보고 다시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 자대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대대로 배치받아 이동했다. 겉보기에는 각을 잡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24시간을 생활해야 하는 신병교육대대보다 개인정비와 자율 활동이 보장된 자대가 더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을 수반한다. 자신이 맡은 임무, 자신에게 부여된 일들을 모두 끝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책임은 일과 후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 생활에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처음에는 이런 책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여러 번 실수도 많이 했다. 그때마다 혼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얻은 특유의 ‘눈치 없음’이 있었다. 남들이 피곤해질까봐 함부로 하지 못한 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은 장점이나 길 때, 안 길 때를 구분 못 하고 눈치 없이 나서는 것은 단점이었다. 군대에서 이런 성격은 곧장 잘 부딪혔다. 동기와의 쉽게 마찰이 생겼고 선임들에게 크게 혼나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 삶도 부정적으로 변하기는 싫었다. 결국 나 자신을 바꾸기로 했다. 무엇이든 말을 할 때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선 어떤 일을 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그런 과정을 스스로에 대입하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니 내가 하는 일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군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입대한 지 1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군대 이전과 비교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면 결국 어렵게 끝나게 된다. 하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쉽게 해낼 수 있다. 입대를 결정한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누구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사회에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의 하나가 바로 나인 것이다.

둘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됐다. 자대에 와서 부모님 초청 행사에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발을 보니 정말 주글주글했다. 외동아들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아버지의 고생이 발에 담긴 것이다. 전역하고 주말에 부모님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매일 고민한다.

셋째, 미래 계획을 짤 기회를 찾았다. 만약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사회에 있었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 길지만 긴 만큼 미래를 생각할 시간도 많다.

사단에서 식목일 행사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행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나처럼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인인 다문화가정 전우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서도 전투복에 ‘하세가와’라는 관동성명이 박힌 전우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호주 영주권까지 있어 역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호적상 이름까지 바뀌가며 ‘하세가와’라는 성으로 입대를 결심한 것은 자유롭게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군대를 통해 이런 교훈을 깨닫게 되어 다른 때보다 ‘정숙’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바꿀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남은 8개월의 군 생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두를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내 인생 제2막



국군 * * 사령부
상병 원 서 준

2014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만이 남은 하루였다. 긴 유학 생활 끝에 얻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앞두고 나는 인생 최고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로 했다.

처음에는 21개월의 군복무의 무게가 큰 산처럼 느껴져 미국인으로서의 삶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군 복무라는 큰 산을 넘기로 결심했다. 내가 태어난 한국,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나의 뿌리를 찾기로 했다. 군 입대 일주일 전이 되었다. 입대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긴장했고 밤에는 허탈감에 잠을 뒤척였다.

2014년 8월 11일 무더웠던 여름, 그렇게 나는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였다. 입대 첫 날, 실 틈 없이 몰아치는 고된 훈련과 엄격한 통제는 나를 답답하게 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편하게 지내면 될 것을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후회도 들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에 첫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입선작

내
인
생
제
2
막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라도 흘렀다. 비슷한 환경의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친구들과
울고 웃으며 서로를 다독였다.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던 전우애 또한 생겼다. 26년을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된 훈련과 억압된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힘들지만, 돌이켜보면 훈련소 생활은
잊지 못할 추억이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던 시간인 것 같다.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는 나에게
훈련소에서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이 인생의 큰 선물로 여겨졌다. 그리고 가족들과 꿀 같은
만남의 수료식을 가졌던 날.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감사함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한국인의 뿌리를 갖게 하기 위해 자원 입대를 추천해 주신 것과 늘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신 것에 감사했다. 이제는 태극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기를 보며 한국인으로서 굳건한 자부심이
생겨난다.

정들었던 동기들과 헤어져 각자의 자대로 배치 받았다. 나는 과천에 위치한 ‘국군 * * 사령부’
라는 부대로 가게 되었다. 자대배치를 받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바로 옆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선임’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스물여섯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했기 때문에 군대의 계급사회와 엄격한
규칙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계급사회와 엄격한 규칙이 군대에서 왜
반드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군대는 전시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군인의 단단한
기강과 정신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상명하복식의 계급관계와 엄격한 규율은 필수인 것이다.

군대에 온 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 번째로, 직무능력과 한국어능력의 향상 그리고 사명감이다.

아침 점호로 시작하는 군대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과 틀 속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기상노래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정도로 적응이 됐다. 내가 맡은 보직은 행정병이며 문서수발이 주 업무다. 처음에 비문관리와 문서관리에 있어 너무도 생소하고 어려운 한국어들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어느새 내가 맡은 역할도 익숙해졌고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생겼다. 이러한 정신력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무엇이든 이를 자신이 있다.

두 번째로는, 진로와 방향성에 대한 선택과 구체적인 준비이다.

일과시간이 끝난 후 자투리시간에 사회에 나가서의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였다. 몇몇 비슷한 진로와 꿈을 가진 선임, 동기들과 컨설팅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시간과 주제를 정해 토론하고 과제를 하며 지식을 쌓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하기만 했던 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가고 있다. 지금은 조금 더딜지라도 군대에서 차곡차곡 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값지다. 특히 사회에서는 집중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군대에 와서는 틈틈이 읽는 휴식시간이나 주말에 책을 읽는 것이 낙이 되었다.

이처럼 군 입대는 나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 뿐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린 시절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미국에 매력을 느껴 유학길에 올라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반면 외로움과 향수, 차별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느꼈던 자유와 여유로움이 가끔은 그림다. 하지만 어디서든 된장찌개에 김치를 찾는 나를 보며 나는 뱃속까지 한국인임이 분명하다. 아시아인으로서, 소수 인종으로서 미국 사회에 살기보다 미국을 잘 아는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하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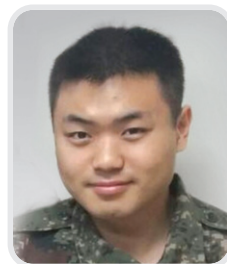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 군인이 되겠다.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며 늘 애국심을 갖겠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겠다.

원서준 인생의 제 2막을 열게 해 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군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충성.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Noblésse Ob·lige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2작전사령부
이병 최 승 리

입선작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서양 특유의 문화이자 자랑거리이다. 나라를 지키는 고귀한 마음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한국에도 있다. 바로 Korean-American인 나다. 어릴 적 해외에서 실종이 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나는 미국 시민권을 손쉽게 얻었고, 한 시도 손에서 연필과 종이를 놓지 않은 나는 미국 명문대학 Wake Forest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단 두 가지였다.

나의 모국에 계시는 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컸다는 칭찬을 받기 위함과 그 동안 부모를 돌보아 준 국가에 대해 봉사하기 위함이다. 의과대학원을 재학 중이던 시절, 나는 한국 연세대 의과대학원과 교환학생을 할 기회가 생겼고, 수소문 끝에 방송국의 한 Producer의 도움으로 나의 친부모님과 인연이 닿았다.

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나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비자 협정에 의해 체류기간을 100일이라는 한도를 주었다. ‘왜 내가 태어나고, 나의 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나에게는 딱 100일 밖에 났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푸른 제복을 입고 건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만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시민권이 주어지고 그 땅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나는 의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USMLE(미국국가의사고시) 자격증 취득과 함께 Duke University에서 의사 인턴을 하던 중 뉴스를 통해 한국의 모 재벌그룹 3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꼭 의무화 된 병역제도나 낮은 군인월급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불평·불만이 이러한 큰 기피현상을 만드는 나비효과가 된 것 아닌가 싶다.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가 ‘병역’이라는 사회적 의무 앞에서 가족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나의 친 부모님은 과연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이 생겨왔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가치관을 품고 살아왔던 나조차도 ‘나부터’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 개념이 모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푸른 제복의 위엄과 군대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군대의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를 극대화 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21개월이란 시간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던 나의 마음속 진정한 가치인 국토수호의 사명과 책임감을 일깨워 준 일생일대의 일이었다.

나는 잠시 회상에 잠겼다. 언어가 안 되어 매일 파돌림을 당하던 학창시절, 매일 고통스런 삶 속에서, 나조차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엄마”를 크게 외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내 몸 안에 흐르는 대한민국의 빨간 혈(血)이다. 내가 아홉 번 넘어지고도 매번 열 번째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라는 단어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극복’과 ‘역전’이 국가 역사와 민족사에 만연히 배어 있는 한반도의 저력이 내 존재의 근원이자 뿌리인 것을 깨달은 덕이다.

나는 고민 끝에 Korean-American이 아닌 ‘The Korean’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기 위해서 내 경력과 나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보직을 포기하고 육군 일반병으로 지원했다. 특별하게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모든 대한민국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군 복무를 온전히 해내는 것이 내 목표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난 의무병으로서 자대배치를 받게 되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나의 생각을 바꾼 군대의 철학적 개념과 이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신병교육대대에서 나의 중대장님께서 군대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며 한 예를 들려주셨다. 중세 시대, 유럽에서 길을 가고 있던 신부가 돌을 깔고 있는 세 명의 석공들을 만났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공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 호기심이 생긴 신부가 그중 한 명에게 물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소?” “보면 모르겠소? 돌을 깔고 있잖소?” 신부는 또 다른 석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소.” 신부는 마지막 석공에게 물었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성당의 주춧돌을 깔고 있지요.” 군대에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의욕과 열정이 있으며 행복하다.

2) 시간낭비가 아닌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

혹독한 훈련, 매일 반복되는 일과들, 단조롭고 삭막하기만 한 군 생활에 무슨 목표냐, 그것이 가능하거나 한가 의문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군대라는 공동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 머뭇거리거나 변명할 여지없이 바로 움직여야 한다. 몸이 행동하는 습관을 기억하게 되어, 주저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다. 또한 군대에서는 정보화 사이버 교육 사이트가 제공되어 무료로 100개가 넘는 자격증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볼 수 있어서 군대에서 스펙을 쌓을 기회가 생기게 되며, 일과 시간이 끝나고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는 개인정비 시간이 있다.

3) 전우애와 신뢰

나는 미국문화에 젖어 자기중심적이고 시니컬한 성격,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때문에 군대의 공동체 생활이 낯설기만 했다. 입시, 취업, 진급이 인생의 중요한 화두에 있었기에 주변 사람을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경쟁자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라 깊은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으나,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우애’라는 것이 생겼다. 무기를 사용하고 내 몸을 동료에게 맡겨야만 하는 훈련이 많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신뢰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4) Leadership and Followership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야 하는 가치인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여러 측면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곳은 군대이다. 작은 단위인 분대로 시작해 소대, 중대, 대대로 집단이 커지면서 리더와 팔로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된다.

5) 다문화 공동체 생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군대라는 집단에서는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은 필연적이다. 분대, 소대, 대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계층,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24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병역의 의무라는 무게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군 복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병역을 마치고 나면 수많은 후배들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다. 병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불침번 근무'인 셈이다. 앞서 경계 근무를 선 전우가 있고, 그 뒤를 이어 근무에 나설 전우가 있다. 한 명이라도 그 근무교대의 순서를 이탈한다면 경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인원이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이 아닌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권리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뜻으로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병영생활이 된 것 같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자부심은 영원하다



1186기 해병
상병 유 성 현

2014년 6월 23일 아침. 부모님, 형과 함께 도착한 포항교육훈련단을 보는 순간 무언가 알 수 없는 설렘과 목직함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바로 전날인 6월 22일은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던 터라 훈련병들과 가족들 중에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말없이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집합을 하라는 방송을 듣고 이동할 때 태어나 처음으로 안락하고 보호받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부터 혼자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나는 2011년 2월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군 캠프는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도전이라는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나에게 도전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 주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같은 민족이라는 소속감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고 싶은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기도 했지만 내 민족, 내 국가라는 것은 언어와 살아왔던 환경, 받아왔던 교육 등을 뛰어넘기에 충분한,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나이가 어렸으므로 영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카뮈사, 어학병, 공군, 직계가족병, 동반입대병 등 무려 일곱 번 도전을 하였으나 모두 떨어졌다. 마지막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해병대에 지원했다.

소수정에 대원을 뽑는다는 해병대 합격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원이 되다니. 해병대가 나의 운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해병대 만세, 유성현 만세”를 외쳤다.

과연 해병대 훈련은 혹독했다.

무엇보다 더위를 끔찍히 싫어하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며, 남들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엄격한 통제와 규율에 따라야 하는 생활, 최고 강도의 육체적 훈련은 지옥 같았다. 교관님들과 조교님들에게 종종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죽어도 못 해낼 것 같았던 행군을 해내면서 자신감과 더불어 동료애가 생겼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의지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료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들이 있어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는 배우기 힘든 것이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동료와 동료의 가족들도 나와 내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 갔다. 훈련소 입소 첫 날 나를 비롯하여 훈련병 모두가 가졌을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의 가족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해병대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자부심은 영원하다”

훈련병 시절 제일 어려운 천자봉 행군을 앞두고 소대장님이 우리 훈련병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이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탐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조리병을 지원했고, 52대대 본부 중대 조리병으로서 즐거운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되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게 된다는 말씀을 실감하고 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군 입대 전 자유 분방한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며 잊으려 하거나,

넘치는 자유의 그늘에서 나태하고, 헌신

적인 부모님의 사랑에 의존하며 나약했던

모습은 이제 나의 일상에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고난의 날에 나를 지켜줄 내 마음의 양식을 모으고 있는 개미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한순간에 땅으로 쏟아지는 비가 되듯이, 내 인생의 성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해병대에 입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놀라워하며, 믿기 어려운 일로 기억하는 뉴질랜드의 친구들이 내 군생활을 궁금해 한다. 훈련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조리병 생활은 어떤지, 구타나 괴롭힘은 없는지 등. 그러면 나는 내 어머니의 말씀을 전한다.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심정이다. 나라가 성현이를 데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며 사람까지 만들고 있네. 한집에 살 때는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군에 보내고 나니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은 나와 같은 사람을 멋진 사나이로 변화시켜 주고, 사회와 불통하는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전역을 하여 군 입대를 꺼려하는 해외 이주 가정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해병대 캠프에서부터 시작된 해병대와의 인연은 단연코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귀신 잡는 해병대 병역을 마친 예비역 해병대원, 당당한 ‘대한민국 남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아가 선임들의 따뜻한 훈계와 배려, 보살핌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나에게 한국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생활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후임들을 정성껏 살피주기 위해 단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단점을 보완하며, 나날이 성숙해가는 내 모습 속에서, 입대 당시 가졌던 ‘이제부터 혼자다!’의 심정은 ‘이제부터 함께다!’로 변화한 것을 본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두 갈래 길

61사단
병장 홍영욱

Chapter 1. 입대 전

때는 2013년, 내 책상에는 2개의 서류가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서류였고, 두 번째 서류는 대한민국 군에 입대하기 위한 자원 입영신청 서류였다. 당시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한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나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큰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었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웠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걱정도 잠시, '삼사이후행(三思以後行)'이라고 공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오랜 고심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Chapter 2. 논산훈련소

시간이 흘러 2013년 10월 14일, 입대 날이 되었다. 논산에 도착한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29연대 12중대 3소대에 배치를 받고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나와 함께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동기들이 있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재외국민 입영프로그램에 지원하였기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비슷한 환경과 과정을 겪은 후 모여서일까? 실질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우리는 스스로없이 친해졌고, 빠르게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다른 훈련병들에 비해 실수도 많았고 군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훈련병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외국에서 온 ‘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기 위해 온 청년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절실하게 땀 흘린 만큼 6주의 시간은 빠르게 지났다.

Chapter 3. 이등병

2013년 12월 2일, 나는 61사단에 배치되었다. 훈련소가 마치 군생활의 종착역처럼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다. 자대에 오면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활관에 새로운 관물대를 배정받고 나니 선임 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임들에게 먼저 잘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걱정을 하던 도중,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태평양을 건너온 신병이라는 소문 때문인지, 선임 병들은 저마다 재밌는 질문거리를 준비하여 나를 불렀다. 체단장으로, PX로 불려 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 보니 그 누구보다 손쉽게 친해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후 나의 첫 역할을 배정받아 무기고 초소에 처음 들어간 날, 난 진정한 군인이 되었음을 몸소 체험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초소에서는 인접 도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실 새 없이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건물들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이 국가가 과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성장된 모습이었다.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잔잔한 평화가 유지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전우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가늠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나의 임무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Chapter 4. 일병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나 또한 부대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선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후임도 생겨서 책임감도 더해졌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군인 신분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강한 전투력에는 강인한 체력과 숙달된 주특기 실력이 핵심 요소라 판단했다. 고로, 나는 특급전사 획득과 TSFO(박격포 관측교육) 우수입상을 목표로 담금질을 시작했다.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2시간씩 살인적인 운동스케줄을 견뎌야 했다. 하루 일과 중 체력단련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두려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입에서는 항상 단내가 나고 운동복은 땀이 마를 날이 없었다. 운동이 끝나면 저녁에는 연등을 해야 했다. 81mm 박격포 관측과 계산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범을 읽었고,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당당하게 특급전사로 선발되었으며, 수도군단에서 실시한 TSFO 최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나도 이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다.

Chapter 5. 상병

상병 진급과 동시에 유격훈련과 동원훈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35도의 땀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대원과 함께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동원훈련장에서는 전역한 선배 전우들과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노하우도 터득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배움은 예상치 못했던 정기휴가에서 일어났다. 재외국민이기에 정기휴가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입대를 결정하고 한국에 온지 어느새 일 년이 흘렀고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도착 당일 공항에서 만난 부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 즐거워하시는 얼굴 이면에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늘어난 주름들과 아픔이 보였다. 아들을 이역만리 조국에 보낸 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그분들의 걱정의 무게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Chapter 6. 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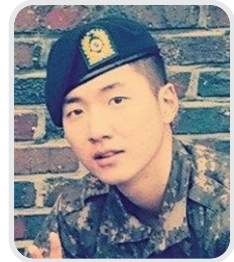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대를 이끄는 선임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난 세월들이 벌써 추억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서서히 사회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다 끝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좀 쉬엄쉬엄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이함이 나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천안함 5주기를 맞이하여 해군 제2함대를 견학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지난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참수리 357정과 천안함의 잔해는 물론 현장에서 전사하신 영웅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다양한 유품 중 한 편지에 있는 글귀가 나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이 짧은 한 마디는 나에게 ‘천안함의 영웅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단 한번이라도 마음을 편히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후배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마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것,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것만이 그분들을 위한 후배된 나의 도리라고 깨닫게 되었다. 다행히도 난 다시금 마음을 되잡고 군 생활에 집중하게 되었다.

Chapter 7. 전역을 앞두고

길게만 느껴지던 20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사회라는 더 큰 바다의 이등병으로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지난 21개월에서 얻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희로애락이 존재했던 나의 군 생활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성장하여 끝이 났다. 강한 대한민국 군인들을 믿고 후배들을 의지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2년 전 나의 선택은 어려웠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 난 추억과 함께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응원하겠다.**

영주권
병사 부문
입선작

나의 선택

2군수 * * 사령부
병장 박 현 수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본에서 자랐다.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우리 삼형제는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현지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며 일본 친구들과 지냈기 때문에 거의 일본어만 쓰며 자랐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나에게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한국 말을 배워야 한다며 동경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주말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 보내셨다. 처음에는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싫고 한국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고 한국 친구들과 지내면서 한국어 수업을 듣다보니 저절로 한국어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한국에 관심도 많아졌다.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일본학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한일 교류활동을 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교류도 하고 체험도 하여 우리나라 민속놀이 등 많은 것을 소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모국에 대해 많이 배워가고 애국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도 한국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군대를 가야되는데 그냥 여기서 살지’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입시를 준비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늘 해주신 군대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내 선택에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서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곁을 떠나 혼자 한국을 오게 된 나는 의사소통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대중교통 문화 등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학교 기숙사에서든 뭐든지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초반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한국에 온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대학교 선배들이 줄줄이 군에 입대를 하고 동기들도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왠지 모르게, 그때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불안함을 느꼈다. 학업을 잠시 멈추고 2년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부터, 여태껏 해 본 적 없는 힘든 훈련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또 북한의 도발도 적지 않은 시기였던지라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했다. 처음으로 내 자신이 선택한 길에 의문을 가졌던 시기였다.

그렇게 걱정을 안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학교에 복학한 선배들과 수업을 자주 같이 듣게 돼서 자주 군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선배들은 군대를 가야하는 지금 이 시점만 보지 말고, 삶을 더 넓게 더 멀리 보라는 말을 해주셨다.

나는 고심 끝에 2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설렘과 기대를 안고 2014년 2월 3일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게 되었다. 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훈련소에서는 모든 훈련, 제식 등을 단체로 하면서 주변을 더더욱 신경써야 했고, ‘**나** 만이 아닌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힘든데 나 자신만 힘들다고 해서 열외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되어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내무반에서 10~20명의 분대원들과 5주간 지내면서 각자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포대들을 보면 한국 각 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에서 태어나 약 18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왔다는 얘기를 동기들에게 하자 놀라움과 동시에 신기해하는 눈빛들로 내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 온 뒤로 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 군대에서의 21개월 동안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추운 겨울 날씨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훈련을 받다보니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많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 전우들과 서로 위로해가며 힘이 되어줌으로써 힘든 훈련도 견뎌내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력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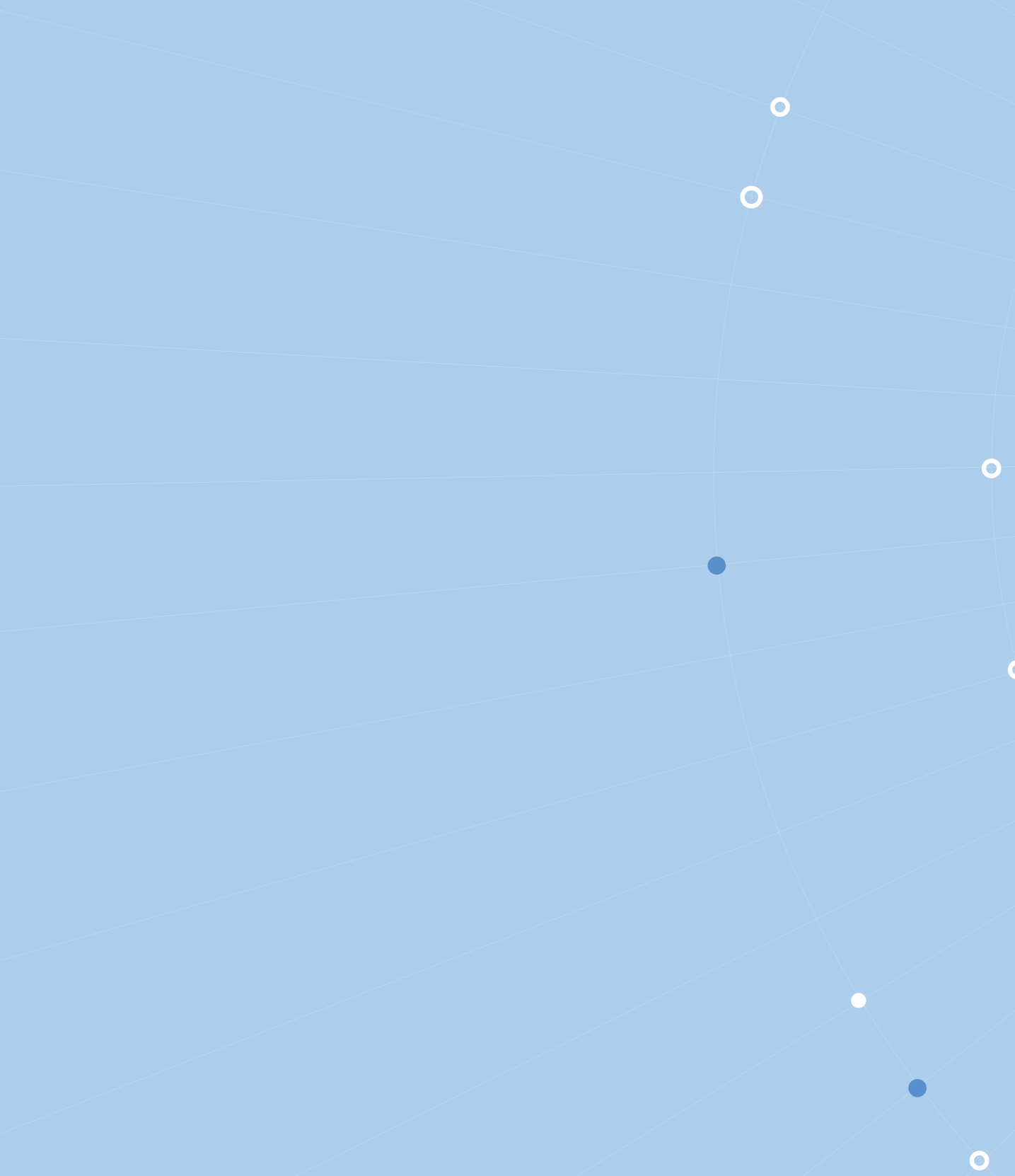
5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나는 의정부에 있는 2군수 * * 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드디어 자대로 간다는 기대감과 이제 말로만 듣던 군대라는 계급사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였다. 처음 자대로 들어와 행정보급관님과 면담을 하려고 행정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 선임들이 해외에서 온 신병인 나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쏟아 부었다. “해외 어디서 왔니?” “군대 안 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이유가 뭐니?” “부모님도 일본분이시니?” “여권도 해외여권이니?” 등등. 선임들이 나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보는 듯한 질문들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살짝 속으로 울컥하고 화도 났지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니 선임들도 그제야 내가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신병들에게 주로



하는 취미, 특기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행정 주특기를 받아, 문서취급병과 중대 서무계원이라는 두 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선임들은 모두 인사계원은 힘들고 할 일도 많다며 문서취급병 하기를 추천하였으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기에 망설임 없이 인사계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초반에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중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보직인 덕분에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임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원들을 상대로 한 ‘일본어 동아리’이다. 원래 일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본어 공부를 혼자 해왔던 중대원이 있었는데, 개인정비 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나를 찾아와 일본어를 배워가곤 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동기 및 선임들도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자기들도 배우고 싶다며 하루에 한 문장씩 그 뜻과 발음을 배워가며, 연습하기도 했다. 중대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는지 희망자를 모집해서 주말 또는 개인정비시간을 이용해 일본어 회화 동아리를 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셨다. 나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일본어 회화 동아리를 시작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아와 이런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영주권자로서 군대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나는 단 한번도 군대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군대를 안 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더 하거나 다른 일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 와서 이등병이라는 제일 아래 계급부터 시작해서 일병, 상병, 병장이 될 때까지 스스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어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얻는 자신감과 용기는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질병치유 병사 부문

질병치유
병사 부문
최우수상

나도 대한민국 남자다



26사단
상병 최 성 원

2010년 2월 7일은 내가 집을 싸서 집을 나온 날이다. 그 때 난 17세였고, 엄마와 형, 여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네 가족이 몸을 짝 펴고 눕기에도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다. 형과 나 둘 중 한명은 당장 돈을 벌어야만 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 했던 형과 달리 나는 꿈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기에 생계를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부천에 처음 올라 왔을 때 북적 거리는 사람들과 화려한 조명 때문에 정신이 없고, 머리마저 아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 학교를 다녔지만, 눈도장만 찍고 교문 밖을 나서 신문배달과 설거지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 돈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지내던 중 연극 한 편을 보고 나서 연극배우라는 꿈이 생겼다. 꿈 하나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신문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하면서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게 참 행복했다. 그 후로 연극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고,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수소문 끝에 극단에 찾아가 잡일을 하면서 연기를 배웠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집에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데, 연극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줄여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빼야만 했다. 다행히 단장님이 극장에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분장실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 힘들긴 했지만, 날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고, 꿈 없이 살던 나 최성원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 학비를 벌어야 했다. 돈 때문에 힘든 고비가 찾아 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영화와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매번 실패를 경험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아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무서웠고, 삶에 대한 겁도 많아졌다. 길을 걷다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나를 욕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20살의 나이에 술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하루를 술로 시작해서 길거리를 헤맸고, 정신을 차려 보면 경찰서였던 게 다반사인 날들이었다.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군대에 하루라도 빨리 입대해야겠다는 생각에 고향으로 내려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군대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재워 주지, 밥 주지, 옷 주지,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심지어는 자동차도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삶에 겁먹어 있던 내게 천국 같은 곳이 바로 군대였다. 그래서 바로 병무청으로 달려갔는데, 신체등급 4급. 평발인 나는 현역으로 갈 수 없었다. 내겐 큰 시련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자취를 해야 하고, 전과 같이 무서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였다. 나는 연기를 잠시 접어두고 미친 듯이 돈을 벌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간다. 나도 대한민국 남자다. 한번 사는 인생, 군대 한번은 다녀오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많은 노력 끝에 운전병으로 자원입대를 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24일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집 앞 터미널에서 논산행 버스에 올라탔다.

육군훈련소 정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만 혼자 온 것 같았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잘 못 들은 줄 알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한 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
진짜다. 뒤를 돌아보니, 고향에 있던 죽마고우
들이었다. 입대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나 몰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깜짝 놀라게
해 주러 온 것이었다. 순간 울컥했지만, 친구들
앞이라서 눈물을 참았다. 기분 좋게 친구들과 이야
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입대하기 싫어지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 때, 입영자들은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들렸고, 아쉬움만
남긴 채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입대를 했고, 남들보다 불편한 발을 가졌기에 두배 세배 더
열심히 훈련과 행군을 마치다 보니, 소대장 훈련병이 되어 있었다. 수료식 날,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동안 훈련받았던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어머니는 내가 좋아
하는 과일과 음식을 많이 가져 오셨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그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제2수송교육단에 가 있었고, 운전한다는 것에 들떠 재밌게 교육하다 보니, 분대장 교육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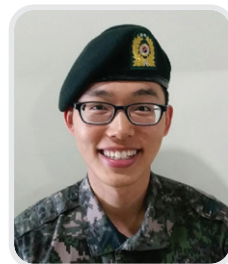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난 306보충대를 거쳐 2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병으로 1주일간 있었다. 보충병으로의 마지막 날 동기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다 잠을 못 잤다. 하지만 그 마저도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었다.

2014년 6월 11일 자대에 처음 온 날, 오자마자 전투 준비태세를 했고, 동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분대장만 졸졸 따라 다녔다. 그리고 끝나기 무섭게 전투 사격훈련과 유격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점차 자대생활에 적응해 가다 보니, 나를 괴롭히던 밍상 선임들과 잘 챙겨주고 좋아해 주던 친한 선임들이 하나 둘씩 전역을 하고 있었다. 허전하고, 군 생활이 우울해졌다.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았던 탓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을 퍼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느덧 난 분대장이 되었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분대원들이 생겼다.

입대 후 겁먹어 있던 바깥 세상에 다시 덤벼들 수 있는 용기와 자심감이 생겼고, 전역한 후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입대를 앞둔 후배들에게 “겁 먹지 마라. 너희도 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건 엄청난 행운이다!”**고 말해 주고 **싶다**. 나는 발도 정상이지 않고 흠도 있겠지만, 겁먹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견뎌 냈다. 입대하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만 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군대에 와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겼고, 인생에 있어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이 행복하다. **후배들도 인생에 한번 뿐인, 또 하나 뿐인 선물과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니까.**

질병치유
병사 부문
우수상

뿌리가 자라는 시간



31사단
일 병 김 강 규

○○아,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군 입대 날짜가 슬슬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니? 입대를 눈앞에 두고 막막해 할 것 같은 너에게 그동안 군대에 와서 배우고 느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주고 싶구나.

형은 2010년 재수생 시절에 눈이 나빠서 사회복지무원 판정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현역으로 입대했어**.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회복무요원인 게 부끄러워서 그러냐?”였는데, 그런 이미지나 명예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일 뿐이거든. 힘듦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복지무원이든 특전사이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에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해.

입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생뚱맞게도 ‘방학’ 때문이야. 두 달이 넘는 대학교 방학기간 동안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고민 끝에 최소한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가서 몸이라도 좋아져서 오자’는

마음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입대하게 되었어. 입대한 날 취침시간에 누워서 빨간 취침등을 바라보는데,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나더라. 사회복지무요원을 했으면 한 달이면 충분했을 텐데.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 그런데 사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한 ‘절실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 그 덕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 둘 값진 무언가를 배워가기 시작했어. 이제 나를 이전보다 철들게 만든 3가지를 보여 주도록 할게.

입대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이야. 입대한 지 며칠 안 됐을 때는 정말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만나오던 사람들과의 추억들이랑 내가 잘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좋았던 것 등 많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 어찌나 사람이 그리운지 훈련소에 있을 때 3분의 전화 포상을 받기 위해 세탁, 사격부사수, 청소 등 온갖 작업을 자진해서 하고, 하루 종일 보고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랬었어.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덜 가볍고 더 진솔한 태도로 대하게 될 것 같아. 네가 입대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그림고 보고 싶어 거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나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설계해 보게 되었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군대라는 강제 일시정지 버튼으로 멈추게 되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로나 목표가 나에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지. 불침번이나 야간 경계근무, 전우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경험담 등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 또, 기껏해야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한두 시간 책을 보는 게 전부지만, 절박한 마음을 갖기에 최고로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 사회에 있을 때 늘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던 토익 책이 있었는데, 틈틈이 보다 보니 어느새 두 번 완독할 수 있었고, 지난 휴가 때 토익 시험을 봤는데, 나름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도 했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후회하고 비판하던 장소에서 자아성찰 및 성장의 보고로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어. 무슨 결심을 하든 절실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야. 갓 입대했을 때, 몸 여기저기에 문신한 사람(한국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처음 사위할 때 보고 깜짝 놀랐어), 과거 범행 경력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등 누구든지 만나게 되고 함께 생활해야 하니, 두렵고 막막했어. 하지만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얘기를 해 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깊고 고민이 있으며, 착한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남들을 괴롭히거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 등 덜 성숙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하게 돼. 모두들 초기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 하지만 슬슬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여느 사람들 처럼 변하는 게 대부분인데,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생일이나 전역 전 파티와 같은 특별한 너만의 날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지, 그냥 조용하게 끝나 버릴지 그 차이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군대는 너의 뿌리를 키우는 시간이다.” 신병으로 막 전입을 왔을 때 전 대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야. 여기서는 학교에 다닐 수도,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

하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넘어서 인내심, 책임감 등 너의 인격을 수양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야. 즐기나 앞서가처럼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키우는 곳이지. 우후죽순이라고, 비 한번 오면 하루가 다르게 대나무가 쪽쪽 뻗어 가잖아? 그렇게 쪽쪽 빠르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준비된 깊고 튼튼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냥 2년을 허비하다 올 수도 있고,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많이 듣는 말이지. 슬프게도 군대는 싫기만 하지, 전혀 즐겁지 않아. 하지만, 즐기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네가 키워낸 튼튼한 뿌리 덕분에 훗날 두배 세배 멋진 너만의 나무를 갖게 될 거야. 지금은 여느 사람들처럼 병장을 부러워하고, 아직 까마득하게 남은 군 생활을 원망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배우고 성장한 것만으로도 사회복무요원 대신 현역으로 자원입대한 나의 선택에 대해 후회 없고,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때를 생각하며 군대에서 느꼈던 ‘절실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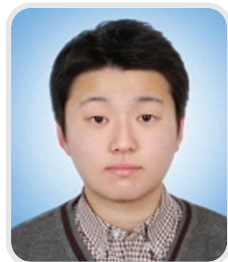
○○아,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응원하고, 그 곳에서 값진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해서 멋지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슴에 태극기를 품었다가 언젠가 활짝 펴 보이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도록 하자. 파이팅!

우수상

뿌리가 자라는 시간

질병치유
병사 부문
우수상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자격이 있다



공군 방공**사령부
상병 양 정 환

나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군에 입대를 했다. 작은 키로 인해 받은 4급, 보충역 판정이 내 발목을 잡아서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기에 더 갑작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주변에서는 처음으로 키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들 4급 판정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길 바랐다. 그러나 나는 재검을 받았고, 대부분의 또래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입대를 선택했던 이유는 군인으로서의 신념이나 기대감 때문은 아니었다.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앞서서였다. 가깝게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길게는 취업을 준비할 때 군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고민은 되도록 피하고, 질문의 여지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다.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군대로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래서였을까. 매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 군대라는 핑계를 댔다. “내가 군대를 쉽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습관처럼 했다. 변화의 계기가 될 무언가가 필요했고 간절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훈처에서의 활동은 내가 만난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꿈꿨기에 대학에 들어와서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하였고, 보훈처 기자일은 그 중 하나였다. 애국지사의 후손과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취재가 주 업무였다. 이 일을 하면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생겼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취재에서 만난 참전 용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에 싸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총알이 수없이 오고가는 전장 속에서 전우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참혹한 광경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면 안 됐기에 그분들은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는 그 책임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나의 후손들을 위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 나가자 다짐했다. 이는 처음 군대를 선택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가 되었고 지금의 군 생활을 만들어 준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군에 들어온 뒤로 가장 안타까움을 느꼈던 순간은 많은 장병들이 주어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히 의무라고만 여기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취재했던 사람들처럼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거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평화를 얻어내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은 현재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군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그리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할 수 있는 그림은 없다. 그렇기에 모두가 필요하고 어우러져야 한다.

바깥에서의 일상은 너무나 치열했고 쉴 틈이 없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다른 이와 마주할 때 손을 잡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경쟁해야 할 상대로만 여겼다. 내가 웃는 순간에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그가 기뻐할 때 난 깊은 탄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한다는 가치의 즐거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슬퍼하는 주변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며 함께 웃을 수 있기에 정말로 기쁘다. 나는 군대를 통해 좀 더 성숙해졌으며 깊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다.

매 달이 끝나갈 때면 언제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한다. 손수 쓴 편지와 먹을거리를 전역자들에게 건네는 일이다.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배웅임과 동시에 지나간 추억들과의 작별에 대한 아쉬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로 들어서면서 나의 10대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기에 앞으로의 시간들만큼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만큼 모두와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좀 더 뜻 깊게 쓰였으면 한다. 나보다 앞서 군대를 거쳐 지나간 이들이 그랬듯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안주거리를 만들고 싶다. 이토록 누군가와 살 부대끼며 꾸밈없이 지내는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는가.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군대에서 보낸 나날들이 앞으로 보낼 날보다 많아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입대를 하기 전에는 평범했던 일상이 군대로 인해 무너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지금의 생활을 벗어나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

가게 된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금까지 항상 고마웠고 행복했으며, 앞으로
도 감사할 것이다.

아직 입대를 하지 못한 미래의 전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이다. 대부분의 청춘이 군대로 선포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곳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닌가 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순간은 항상 긴장되고 꺼려질 따름이다.
하지만 그 짧디 짧은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어렵지도, 대단치도 않아진다. 작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모르니까 가르쳐주실 수 있잖아요.”라는 주인공 장그래의 대사
한마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의 세태와는 거리가 멀기에 어색하게만 들린다.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를 바라고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증명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군대만큼은 아니다. 모두 똑같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에 모든 일들을
천천히 배워나가고 알아가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르침을 주던 사람이 떠났을 때 빈자리를
대신해 그 역할을 이제 당신이 해내면 될 뿐이다. 내가 알고 있으므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
가며 서로에게 용기와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곳. 그게 바로 군대이다.

2년은 분명히 긴 시간이며 짧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군대에서의 2년이 낭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를 통해 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친구, 선배가 되었다. 선택
이란 본인에게 달린 문제이다. 다른 이에게 어떤 길을 구체적으로 가기를 바라며 제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가 왔던 길만큼은 나쁘지 않았고 후회 없었다고 말하겠다. **멋진 20대, 그 이름은**
자랑스러워질 수 있고 그 기회를 택할 자격 또한 충분히 있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고
신념으로 이를 증명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우수상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자격이 있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장려상

노력의 가치에 대하여



제1군수 **사령부
상병 김 기 백

고등학교 2학년 때 행복했던 삶을 뒤바꾼 큰 사고를 겪었다. 갑작스럽게 집안에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와 여동생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아버지와 나는 미칠 듯한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디 다시 일어나 주길 기도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동생을 살려내야 했다. 나와 15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여동생을 병원에 홀로 둘 수 없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나신지 7개월 만에 새어머니를 들이셨다.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단둘이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행히 대학 진학까지 할 수 있었지만, 사고의 여파가 남아 있어선지 몸도 마음도 너털너털한 상태였다. 그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우울증으로 7급 재신체검사가 나왔다. 정신과 치료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내게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는 더욱 충격이셨던 듯 했다. 아버지도 아내를 잃고 딸은 아프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새 가족도 스트레스인 상태에서 아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자 다 아버지 탓이라 하셨다. 눈물을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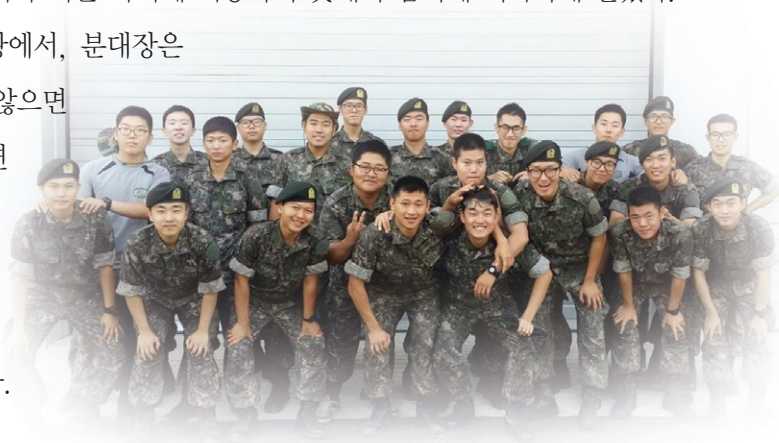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재신체검사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현역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단한 노력 끝에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동안 몸관리를 안 한 탓에 몸무게가 127kg 정도로 4급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 나는 군대에 가지 않는 것에 안도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현역을 권유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근무를 하면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하지만 현역이 두려웠다. 일단 현역 문제보다는 건강을 위해 체중감량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병이 심해져 걷기 힘든 상황에서도 여동생을 보러 일주일에 한번 씩 꼭 들르셨다. 의식 없는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던 할아버지는 늘 나와 아버지, 여동생을 걱정하셨다.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신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4개월만에 22kg을 감량하였다. 4번째로 찾아간 병무청에서 안타깝게도 400g 초과로 또 탈락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뒤에 다시 5번째로 찾아가서 98kg로 겨우 대한민국 현역 군인 입대에 첫 발을 들였다.

2014년 10월 20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였다. 훈련소는 지옥 같은 곳일 줄 알았다. 하지만 훈련소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인지 나와 같이 불안해하는 훈련병들을 보자 묘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3일간 입대장정들이 훈련병이 될 수 있는지 건강테스트를 하고, 미달되는 장정들은 귀가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참 부러우면서도 불쌍한 오묘한 느낌이었다. 훈련소에서 의외로 1~2주차가 제일 힘들었는데, 정신교육을 받는 것보다 힘들었던 것은 교관들의 태도였다. 말투, 행동 등 전부 군인으로 바뀌어 갔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많이 혼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3~4주차엔 사격, 수류탄, 화생방, 행군, 각개전투 5가지 훈련이 있는데,

각 교장으로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훈련 자체보다 오고 가는 게 더 힘들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반짝반짝했는데, 초반에 어색하던 분대, 소대원들과 친해지기 시작한데다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전우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큰 훈련이 끝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 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각개전투가 힘들었는데, 끝난 후 생활관에 돌아와 보면 다들 완전 군장에 위장크림은 얼굴에 한 가득 발랐고 옷은 진흙투성이였지만, 표정은 다들 밝았다. **몸은 녹초였지만 마음만은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서로 웃으며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해냈구나, 결국!**”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자대로 가게 되는 배출식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이미 너무 친해져버린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짙한 이별을 했다.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 더 숙연했다.

나는 59탄약대대로 자대배치를 명받았다. 12월 2일 시작된 자대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바리했다. 고향인 울산에선 겨울에도 영하 10도로 잘 안 내려갔는데, 이곳은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라 기온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에 지독하게 걸렸다. 첫 근무부터 열외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대장은

“이등병이면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근무는 나가야지. 니가 안 나가면 네 선임 중에 한 명이 나가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프고 몽롱한 상태에서 억울함과 서러움에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하고 있다. 처음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다행히 1월부터 동기가 들어와 3월에는 7명이 되었다. 훈련소 때처럼 아무리 힘든 일도 동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었다.

혹한기 훈련 때 가장 인상 깊은 건 역시 춥다는 것이었다. 추운데서 자다 보니 다음날 몸이 안 좋아서 훈련을 받는 것이 훨씬 힘들었다. 동기들도 각자 자기 임무를 하다 보니 만날 기회가 적었고, 4박5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야 동기들과 이야기하면서 피로를 떨쳐냈다. 첫 휴가 때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납골당에 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영했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또, 여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란 모습에 큰 병을 견뎌주고 있는 동생이 대견스러웠고, 별 차도가 없는 것이 너무 가여웠다. 사랑하는 동생이 부디 전역하기 전에 옛날의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기에 힘든 현역을 선택한 내가 바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힘든 주변상황과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큰마음 먹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얻은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냈다는 ‘자부심’이었다. 실패가 두려우면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노력이 두려우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상처입고 흔들리고 쓰러졌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도 혼자서 이 힘든 길을 걷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난 할 수 없을 거야’가 아닌 ‘나도 도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노력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장려상

내 일생의 전환점



제32보병사단
상병 박 태 영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인지 힘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고생도 해보지 않고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게임중독자였다. 공부는 물론,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내 모습은 120kg의 거대한 몸뚱이를 가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와 함께 병무청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친구는 2급 판정을 받은 반면, 난 과체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이 나왔다. 친구는 나를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봤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다.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신체검사 결과를 알려드렸고, 힘든 군 생활보단 사회복무요원을 반기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그 후, '이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되려면 나 자신부터 바꿀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을 계기로 나 자신을 한번 바꿔 볼까?'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굳게 마음을 다잡고 4급 판정을 3급으로 바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꼭 가야지! 이번을 계기로 내 자신을 바꿔보자!'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크나큰 다짐이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식욕과의 전쟁, 다이어트를 선포했다. 주변의 반응은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대견하다.”라는 소리와 함께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적지 않게 들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고 같이 먹고 놀던 친구와 연락을 잠시 끊으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먹는 것부터 조금씩 줄여나가고, 할 줄 아는 운동이 따로 없어서 걷기운동부터 시작했다. 집에서 저수지까지 약 6km 되는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매일 몸무게를 측정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아침엔 사과 하나, 점심엔 소량의 식사, 저녁은 먹지 않았다. 그리고 저수지까지 2리터 생수 5병을 가방에 넣고 행군하는 속보로 왕복하였다. 힘든 방법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게다가 신경이 매우 민감해져 다이어트를 도와주던 가족들과 오해도 많이 생겼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보니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항상 세 자리 수를 가리키던 체중계가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99kg에 멈춰섰다. 그 몸무게를 보며 ‘나는 해냈다.’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그렇게 나는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했고, 98kg의 몸무게로 당당히 3급, 현역복무 적합자로 입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자가 되었다.

설렘 속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훈련소 생활은 다른 삶을 살아 온 동기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훈련소에서 힘들었던 것은 사회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왔던 터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다. 또한, 요요현상으로 몸무게도 98kg에서 105kg으로 돌아와 버렸다. 단순한 운동에 식단조절로 뺀 몸무게이기에 체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 강도가 높은 각개전투, 행군과

같은 훈련은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사회에서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절대 포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본 훈련소 소대장님은 “넌 뭘 해도 어딜 가더라도 잘 할 것이다.”라며 더욱 더 격려해 주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말 길 것 같았던 5주의 훈련소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게 자대 생활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소한 실수에도 스스로 주눅이 들게 되었다. 그러다 정신교육이 있던 날, 김창욱 교수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뇌리에 스치며 내 마음을 울렸다. 그 강연을 듣고 난 후 생각했다. ‘군 복무를 위해 20kg을 감량하고 훈련소 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수료했다. 겨우 이걸로 주눅들 수 없다. 내 문제를 고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난 뒤로 나의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 후 첫 훈련인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다. 처음 받는 유격 훈련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았다. 꾸준한 체력단련으로 처음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 지긴 했지만 유격훈련을 소화하기엔 아직 역부족이었다. 체력적인 한계와 탈수 증세, 쉬어가는 목소리 등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악물고 버티며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여 힘든 유격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몸이 안 좋은데도 끝까지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선임용사들과 간부님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그에 힘입어 모든 일에 열심히

하였고, 처음으로 인정받아 중대장님 표창도 받을 수 있었다. 체력부족으로 상병 진급을 걱정하고 있었던 나는 꾸준히 노력을 하여 전투프로를 달성했고 정상진급도 해냈다. 이제는 특급전사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후임들이 힘들어 보이거나 곤란해 하면 내 처음 모습을 떠올리며 같이 고민을 해결하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힘내라고 많은 조언을 해 주면서 군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대부분이 한창 파릇파릇한 청춘에 시간 낭비라며 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군대라는 전환점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뀐 내 모습에 놀라워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반드시 현역으로서 자원입대 하겠다는 다짐으로 인내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군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군 생활을 해어나갈 수 좋은 친구들도 만났다. 성실한 군복무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모두가 내게 “군대 참 잘 갔다”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전하고 싶다. 군대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군대에서 무엇이든 얻어가고 바꿀 수 있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장려상

나의 '젊음' 체험기



7군단
병장 정성운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식의 설렘과 아쉬움을 잊기도 전에 낯선 땅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생활을 지원해 줄 만큼 여유 있는 가정형편이 아니었기에 학교 수업과 과제,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쉼 없이 이어진 3개의 아르바이트가 만 4년의 유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바쁘게 그리고 외롭게 공부를 하였다. 매일 3시간도 잘 수 없었던 생활 끝에 내게도 희망이 다가왔다. 평소 열심히 생활하는 나를 예쁘게 봐 주시던 한 장로님께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대학원 학비 전액과 공부할 동안의 집값, 생활비, 교통비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후원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다. 장로님은 호주 이민 1세대로 한인사회와 호주 정부에 큰 영향력과 신뢰를 끼치고 계셨기에 그분이 영주권 신청의 보증인이 되어 준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다.

당장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다 잘 되었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제야 나도 호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어쩌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매일이 꿈만 같았다. 영주권 준비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되었다.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장로님께 전달해 드리고 나니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벅차게 다가왔던 일상이 어찌나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가족을 떠나 9개월이 되었을까, 그 해 11월 23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수업을 마치고 전도사님과 교회로 가는 차 안이었다. 뒤쪽에 앉아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며 “어!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대!”하고 외쳤다. 바로 그날! 휴전 후 북한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하였던, 두 명의 젊은 해병의 미처 피우지 못한 꽃이 스러지던 그날이었다. 얼른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 온통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1보)들만 줄지어 올라왔고, 당시 형이 군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불안감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우리 형을 다시 못보면 어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고 평화롭던 내 조국 대한민국을 포격한 북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며 무력하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 우리 군의 단호하고 엄중한 반격으로 북한의 도발은 이내 꼬리를 내렸고, 가족들과의 통화로 군 복무 중이던 형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였다. 호주 언론도 속보를 통해 정전 후 첫 대남 도발을 보도하였고, 가만 앉아 뉴스를 보던 내 마음 속에 양심의 불편함이 커져갔다.

‘내 나라가 위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TV를 보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나 하나만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의 소리는 무겁게 나를 눌러왔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2년 후 학교를 졸업한 나는 장로님께 “믿을 수 없을 만큼 과분한 호의지만,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중히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한국에 돌아와 바로 해병에 지원하였다. 목숨을 걸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산화한 그들이 내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체력검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였다. 체력시험은 무난히 안정권에 들었고 조금 불안했지만 면접도 잘 마쳤다고 생각했다. 개운한 마음으로 그리고 막연한 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왼쪽 어깨와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가슴은 칼로 죄는 듯 고통스러웠다. 이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입대를 위해 시험을 보고 온 터라 ‘군대 가기 전에 진료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에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설명 드리고 심전도 검사를 하였는데, 곧 선생님이 부르셨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너무 놀라지 말라며, 내게 선천적 심장기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가끔 가슴이 아프고 피곤하기는 했지만, 운동을 안한 탓을 하며 더 열심히 운동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니.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다 괜찮을 거야’ 생각했는데, 예상도 못한 순간에 내 안에 숨어있던 병을 찾게 될 줄이야. 입대를 포기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을 끝내고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건넨 말이 “군대 갈 수 있어요?”였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말이 툭하고 튀어나와 버렸다. 의사선생님은 다 알겠다는 듯 “수술을 했지만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안가도 될 거야”라고 내 의도와는 180도 반대로 이해하셨다.

내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영주권 문제야 당당한 한국남자가 되기 위해 포기했다고 하지만, 심장 문제는 내 건강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 또한 불법으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고민하느냐고, 젊은 날의 객기가 아니냐고 입대를 완강히 반대하셨다. 친구들도, 여자친구도, 스물 넷에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가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냐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차일피일 더 미룰 수도 없었고, 나는 결정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다. 1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내 조국을 위해 눈을 뜨고 땀을 흘렸다. 잠들지 않는 육군의 항시 전투 준비태세를 위한 통신작전을 지원하는 자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하라!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건다!’ 우리의 다짐을 매일 아침 외치며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다할 것을 전우들과 약속하였다. 입대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중대원들과의 뜨거운 전우애, 완벽통신을 위해 각자 분야에서 땀 흘릴 때 얻어지는 성취감, 오래토록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생의 큰 지침이 되어 준 여러 간부님들의 조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 언젠가 통신단장님께서 큰 문제로 고민하실 때, “안락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야지” 신음하듯 스스로에게 다짐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나로 인해 오늘 하루가 무사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이겨 내고 두발로 당당히 서 ‘대한남아’임을 증명한 것에

있을 것이다. 군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군이 편한 길을 버리고 사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왔노라.”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장려상

가짜 시력으로 진짜 군인이 된 사나이



9912부대
중사 이 승 원

“자네, 이 시력이면 면제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이었다. 안과 군의관님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의 시샘어린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이승원 님, 5급 제2국민역입니다.” 최종 결과 안내에 친구들은 “시간 벌었네, 우와, 좋겠다!” 하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난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30여 년을 군에 몸담아 오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면제 판정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한 아들이 현역으로 가지 않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하셨다니, 군인이기 전에 당신도 치유불가한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이셨다.

나의 군 면제 사유는 다섯 살에 식별된 후천적 백내장이었다. 백내장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걸리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병역면제가 확정되니 허탈했다. 어딘가 비정상이 된 느낌과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께서는 IMF로 힘든 시기인데, 사회진출 준비기간이 많아진 만큼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업한 나는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채용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졌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어느 날, ‘어릴 적 내 꿈이 뭐였지? 물음이 떠올랐다. “군인, 커서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외치던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소년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후천적 백내장으로 면제되지 않았던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침 현역병으로 복무 중 이던 동생이 부사관에 지원할 거라고 했다.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비록 승산이 없지만, 도전해 보지 않고 꿈을 포기하는 건 나에 대한 배신 아닌가. 이왕 군에 지원할 거라면, ‘남들을 이끌 수 있는 간부로 가서 리더십을 배우자. 적성이 맞으면 장기, 아니면 의무복무 4년 후 전역하자’ 라는 마음으로 부사관에 지원했다. 기초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백내장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별짓 다하는데 대견하네” 하시며, 시력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도록 돋보기안경을 콘택트렌즈로 바꿔 주셨다. 덕분에 교정시력 1.0으로 간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물론, 부사관으로 임관하기까지 수월하지 않았다. ‘내가 제법 눈물이 많은 남자구나’ 알게 되었고, 온실 속 화초처럼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게다가 스물다섯 늦은 나이에 입대하니, 동기들이 대부분 동생들이었다.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땀을 흘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전우가 되어 있었고 군인으로 한결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임관을 앞두고, 훈육관님과 정밀면담이 있었다. 나는 마음 깊숙이 담아 둔 콤플렉스와 군인으로서 포부를 말씀드렸다. 훈육관님은 백내장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사실에 당황해 하셨지만, 나는 훌륭한 훈련성과 성실한 생활태도로 후보생들의 모범이 되어 임관에 제한사항이 없었으므로, 당당히 임관식에 설 수 있었다. 한 달 먼저 임관한 동생과 함께 삼부자(三父子) 부사관이고, 자원병역이행자라는 이유로 임관식 제일 앞 줄에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계급장 수여식에서 어깨 왼쪽에 학교장님께서, 오른쪽은 아버지께서 하사 계급장을 달아 주셨다.

그토록 원했던 부서관 계급장을 달자, ‘힘겹게 간부로 임관했는데, 앞으로 군 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가족에 먹칠하는 꼴이 될 거야. 힘들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임관 후 특공대로 자대배치를 받았고, 특공대에서 시작한 군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임관식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지금까지의 군 생활이 만족스러웠다. 부서관으로 임관한 지 10년, 지금은 9912부대 방송담당관으로 임무수행 중이고, 5살, 3살 두 아들을 둔 가장이 되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께서 그러셨 듯 땀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너희도 현역으로 무사히 복무하고 우리 가족 3대가 현역 복무한 병역명문가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부서관으로 자원입대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군 생활을 통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헤쳐 나갈 지혜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입대를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흔히 군대를 인생의 종합대학이라고 한다. 가짜도 진짜로 거듭나게 도와주고 이끌어 준 곳. 난 오늘도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는다.

군복 입은 자들이 자랑스러운 곳, 청춘예찬 자원병역이행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육군. 사랑합니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처음으로 스스로 해본 선택, 자원입대

9사단
상병 송 경 철

첫 휴가 때 공익 말고 현역으로 간 거 후회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봤다. 이미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한 친구들은 무조건 후회할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다. 306보충대 입대 날, 연병장에 전 장병들이 집합했을 때, 바로 후회했고, 무거운 몸으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후회했고, 이등병 약장을 달고 자대로 전입하자마자 의류대도 풀기 전에 다음 주 유격훈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유격훈련을 받을 때도 진심으로 후회했다. 올해 2월쯤인가? 누군가 내게 군 생활 어떠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후회? 안 해. 군 생활 할 만해. 재밌어.”라고 대답을 한 것이.

나는 어릴 때부터 덩치가 크고 썩썩했다. 아버지께서 남자는 맞고 다니면 안 된다고 늘 말씀 하셔서 자연스럽게 체육관을 다녔고, 18반무에 3단, 합기도 3단까지 뒀다. 여러 대회에서 입상 하면서 체육관 관장이 꿈이었는데, 운동에 대한 욕심으로 허리를 다쳐 고1때 운동을 그만 두게 되었다. 운동은 않고 먹는 양은 예전과 같다 보니 체중이 계속 늘었다. 73kg였던

입선작

처음으로 스스로 해본 선택, 자원입대

체중이 고3때 97kg, 20살때는 108kg까지 늘었다. 주위에서 왜 이렇게 살쥔냐, 못 알아 보겠다. 또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러던 중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허리에 대한 진단서를 내면 보충역 판정이 되겠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군대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다들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과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충격이 컸다.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었다. 현역 판정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고, 5kg 정도 감량하여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현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부모님께 현역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잘했다고 하셨다. 내색은 안 했지만, 자기관리를 안하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했고, 무엇보다 안타까웠다고 하셨다. 부모님의 잘 했다는 한 마디에 용기가 났다. 군대에 가는 것이 객기가 아니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게 되었다.

이등병 때 전입 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유격훈련을 했는데, ‘군대가 이런 곳이거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21개월을 버티지?’ 싶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뿐이었다. 입대 전 다짐한 것 중 하나가 ‘절대 열외하지 말자’ 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해서 군대를 왔는데, 약한 모습 보이고 힘들어 하면 군대에 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유격훈련을 받았다. 훈련 마지막 날, 조교들도 칭찬해 주고, 간부들과 선임들도 덩치 크고,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떻게든 훈련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했다. 이 후에도 군 전투 지휘검열, RCT, 진지 공사 등 여러 훈련과 활동, 6개월 간의 강안경계작전 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등병 때 생활관 대표병을 했고, 일병 4호봉때 분대장 견장을 달았다. 남들보다 빨리 분대장을 하면서 어려움도 따랐다. 중대장님과 간부님들의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선임들이나 동기들과 마찰을

빛기도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관계회복에 힘쓰지 않았겠지만, 군대에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미우나 고우나 같은 중대이고 소대이고 내가 이끌어 가야 할 분대원들이다. 남들보다 일을 좀 더해도 내가 분대장인데 더 열심히 해야지. 분대원의 실수로 내가 혼이 나도 괜찮다. 괜찮다 감싸주는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다.

군대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안 맞는 사람도 있다. 나도 사이가 안 좋은 전우가 있었다. 그 전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기 싫고 맘에 안 들었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전우들과도 마찰을 많이 빚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그 전우를 기피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간부 한 분이 너희는 사람 한 명을 왕따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혼을 내셨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왕따, 따돌림 등을 비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정작 내 행동이 다를 게 없었다. 그 전우에게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또,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도 이야기했다. 섭섭했던 점, 바라는 점 등 속사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대화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당시, 소대장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못되게 굴어도 그 행동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게 사실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깨달은 사건이었다.

군 생활은 100M 달리기 선수가 전력질주로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빨리 가도 군 생활은 길다는 것을 비유한 말인데, 참 재밌으면서도 공감이 간다. 마라톤을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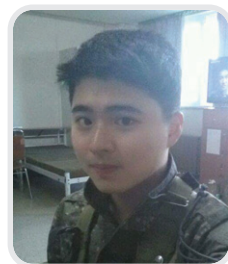
질주로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것이다. 그러나,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사히 완주하는 데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반에 빨리 달리다가 후반에 들어서 지쳐 포기하는 것보다 초반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21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군대에 있는 21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을 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보낼 60년 시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주위에서 다 가니까? 총 한번 쏘보고 싶어서?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이유로 입대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유였다면 지금껏 받았던 포상휴가, 분대장 임무 수행, 또 지금 이 글도 쓸 수 없을 것이다. 군 입대는 처음으로 주위 시선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오직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했다.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계급 약장은 젓가락과 같다. 이등병 때는 젓가락이 하나라서 내 밥 먹기 힘들었고, 일병 때는 간신히 내 밥만 챙겨 먹었다. 상병이 되고 나서야 다른 전우에게 젓가락 한 짝을 빌려 줄 수 있게 되었고, 병장이 된다면 젓가락 하나를 빌려주고 싶다. 사회에 나가서도 내 밥 잘 챙겨먹고 다른 사람도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군대에 오면 누구든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바뀔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확신한다.

군 입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다.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이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육군 미사일사
상병 오진우

요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알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받기 원하는 사회이다. 내 삶도 군 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랬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키 157cm에 몸무게 72kg였다.** 남들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자책이 심했다. 작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울면서 원망한 적도 있었고, 하느님께 '제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키가 10cm만 커지게 해 주세요!' 기도로 애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스무 살이 되어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학창시절 건강검진은 받은 적이 있지만, 군인이 되기 위한 신체검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신체검사가 끝난 후 현역 판정을 기다리고 있던 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신장 기준 미달로 신체등급 4급이 나왔다. 군대에 가기 위해선 키가 158cm 이상 이어야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큰 함성소리가 들렸다. '와! 대박이다!',

입선작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진짜 부럽다!’, ‘축하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진심으로 부러워했지만, 나는 너무 민망하고 내 자신이 싫었다. 황급히 신체검사장을 나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많은 것을 잃은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다.

집에 와서 내 자신에게 물어 봤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20년을 살면서 내 자신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었다. 주변 사람들 인생에만 관심 있었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 내 자신에게 물어 보니 대답은 ‘자신감’ 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내게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은 상대적으로 현역보다 편한 사회복지무요원을 부러워했지만, 2년의 사회복지무요원 생활보다는 남은 인생의 자신감 있는 삶을 더 원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힘들겠지만, 적어도 1cm라도 키가 커서 현역으로 당당히 입대하자고! 나는 일명 ‘키 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체중 감량은 다이어트와 자기관리로 성공할 수 있지만, 키가 크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간절히 군 입대를 목표로 운동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자리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45도 자세를 유지했다. 8주간 병원을 다니면 오다리 교정을 받았고, 걸을 때도 다리를 붙여서 다니는 연습을 했다. 간단한 실생활 운동이었지만, 2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이 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줄넘기 3천개를 목표로 운동했다. 이런 노력 끝에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사람들은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뿌듯하고 힘든 노력의 결과였다.

훈련소에서 처음 해 보는 훈련들로 심신이 지치면, 군대에 오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운동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이겨냈다.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오니, 우리 부대의 하나 밖에 없는 편성 보급병이라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간부들과 배고프지 않냐고 건빵을 챙겨

주는 선임들 덕분에 자대생활을 밝게 시작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다. 후임이 들어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선임들보다 후임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웠다. 후임들과의 관계로 힘든 무렵, 또 다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물어 보았다. 대답은 ‘진정성’이었다. 학력, 부, 나이 등 모든 부가적인 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단지 선·후임 관계로만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후임을 대할 때 그냥 선·후임의 입장으로만 대했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임과 화해하고, 선임과 후임 뿐 아니라 간부, 동기들과도 모두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인지 부대에서 ‘모범병사’ 포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하루에 꾸준히 무산소 운동 40분, 3km 구보를 하면서 입대 전에 72kg이던 체중을 60kg까지 감량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느새 군 생활을 한 지 1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 아무 것도 모르고 두려워만 했던 훈련병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상병이다. 남들에게는 군 생활이 고통스러운 21개월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내 삶은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주체적인 삶이라기보다 남들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었다. 군대에 와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진심으로 다가가는 ‘진정성’을 배웠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경험하는 길고도 짧은 군 생활 21개월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입대를 앞둔 친구들! 군 생활에서 고통 받는 전우들! 모두 군 생활 21개월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내가 선택한 해병의 길



제1해병사단
상병 김민준

나는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이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연예인들처럼 군대 안 가겠네?”, “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집에서고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복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계속 권유했다. 나는 한국에서 쪽 살았고 먹고 자란 곳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의 주관대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 입대를 쪽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학교 입학 전부터 허리가 나아 지길 바라며 한의원에 가서 교정 치료를 상담해보고 척추 전문병원에서 운동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조금씩 나빠졌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고 1학기를 마친 후 여름 방학 때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 휜 정도가 23도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나는 기계계열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고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안 가 나는 그만 났고,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졌고 하루하루 자괴

감에 빠져 살았다.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인지 허리가 더 안 좋아져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대상. 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9월에 다시 학교로 갔다.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간 터라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았다. 공대이기 때문에 남자들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두 살 위인 10학번 복학생들뿐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마치면 헬스장에 바로 갔고 운동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허리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여 용돈을 모아 한의원에서 틈틈이 교정 치료를 받았다. 운동을 하니 자신감이 생겼고 생각이 바뀌었다. 남들 다 가는 군대 까짓것 도전해보자. 운동과 교정치료를 하니 허리 또한 조금씩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2014년 1월 병무청에 가서 재신체검사 접수를 했다. 나는 속으로 다시 현역 판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찌지 불안해하며 정형외과 군의관 앞에 앉아 내 차례를 기다렸다. 군의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한의원 치료 및 운동 치료로 몸 상태가 호전 되었고 소견서를 보여드리며 다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처음엔 안 된다고 거절하셨는데 계속 꼭 입대 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X-Ray 한번 찍어보자고 하셨다. X-Ray를 촬영하고 영상의학과 군의관과 면담 후 의지가 마음에 든다며 요근래 보기 드문 청년이라며 예전 자료와 비교 하시더니 다시 정형외과 군의관님께 가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정형외과 군의관님께서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현역 판정 하였으니 며칠 후 입대 지원을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난 며칠 후 해병대 1183기에 지원했고 1차 합격 후 면접을 보았다. 결과는 ‘불합격’ 신체등급이 3급이라 점수가 많이 감점된 것을 알고 속상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니며 2014년 6월 23일 입대인 1186기에 지원했다. 공교롭게도 입대 전 주인 6월 20일 금요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이번만은 꼭 붙기로 마음

먹었다. 3급이기 때문에 체력평가 준비를 더 열심히 했고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 형님들께 팔 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우며 매일 같이 운동하며 연습했고 결과는 체력점수 60점 만점 중에 50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최종결과 ‘합격’, 6월 23일 나는 포항으로 입대를 명 받았다. 공교롭게도 6월 23일은 1165기가 전역하는 날이었고 나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 1명과 대학교 친구 1명이 전역을 하였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들어가 전화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위의 두 친구에게 영상 통화가 왔다. 팔각모에 전역마크가 붙어 있었고 고생하라며 놀림 반 격려 반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솔직히 부럽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존경스러웠다. 그 친구들이 21개월 동안 고생하는 동안 나는 편하게 학교를 다니며 고요하게 살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배웅 속에 동기들과 손을 잡고 훈련 교관님들의 인솔 하에 악명 높은 해병대의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다. 다른 동기들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데 유독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서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며 “아들아~”라고 나를 부르며 쳐다보셨다.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나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날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철없던 시절의 나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나이로 말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무청 해병대 지원 게시판에 있는 글귀이다.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힘들어도 여태 버텨왔고,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영원한 해병’이라는 군가가 시작될 때 ‘사나이 가슴에 큰 뜻 품었다. 불사신 그 이름 영원한 해병’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 또한 큰 뜻을 품고 입대하였고 해병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훈련병 때 살이 10kg 가까이 빠지는 바람에 허리 근육이 약해져 실무에서 고생을 했지만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 내가 미국시민권자인 것은 내 동기들과 선후임들 그리고 간부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현역’이 된 사실은 나의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뿐인 국방의 의무 멋지고 성실하게 임하자’라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나로 인해 나의 부모님이 밭 뺨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실무 생활이 힘들었을 때 내 선택에 후회한 적도 물론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며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 상병으로 진급했다.



힘들었던 지난 나날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은 추억으로 여길 수 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군대에 온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틈틈이 독서를 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 지내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남들의 시선과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난 나의 목표인 해병대에 왔고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난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 **난 대한민국 해병대 兵1186期 김민준이다. 오늘도 나는 군대 안에서 나 자신을 단련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신의 아들은 따로 있지 않다



제8* *사단
상병 송영규

어느덧 입대한 지 1년, 나 자신이 원해서 얻은 군복을 입은 지 벌써 365일이 훌쩍 넘었다. 친가의 집안 내력으로 어려서부터 저체중이었던 나는 잦은 감기부터 다양한 질병까지 항상 몸에 달고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자주 방문하는 단골환자였다. ‘종합병원’, ‘빠빠로’, ‘젓가락’ 같은 별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최근까지도 늘 붙어 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눈엣가시였고, 명절 때 만나는 가족, 친척들에게도 항상 듣는 말이었다. 그 중에서도 “너 나중에 커서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기네스북에 등록시켜버리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이자 짜증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도 또래 아이들에게 나같이 왜소한 동양인은 만만한 상대였고, 역시나 chopstick(젓가락)과 twig(가는 나뭇가지) 같은 마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단어들로 별명을 붙였다.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보니 대한민국 남성들이 겪어야 하는 병역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다. ‘신체검사도 안 받고 그냥 군대도 안가면 안 되나?’, ‘몸도 약한데

군대를 꼭 가야하나?’와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라고 잔머리를 굴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학자금을 마련할 겸 한국에 들어와 학원 영어강사 생활을 하다가 반년 이상 체류하다 보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드디어 신체검사 날, 186cm에 53kg 저체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나는 무언가 **아리송한 느낌을 받았다**. 그토록 가기 싫던 현역이었고 면제를 원했던 내가 보충역 판정이 나왔는데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1~3급 현역 판정을 받으며 키득거리는 주변의 해맑은 청년들을 보니 ‘아, 저렇게 건강하게 현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가슴 한 켠에 부러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국적도 포기할 기세였던 내게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 발판을 만들어 준 계기가 있었다. 2012년 11월 해외여행 중 ‘네이트 스미스’라는 한국인이지만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동갑내기를 만났다. 네이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여권도 기한이 끝나가고 얼마 뒤에 보충역으로 입영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어차피 체질상 살이 안찌고 군대 가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2년이란 내 청춘을 한국에서 낭비하기 싫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잖아.”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했더니, 네이트가 존.F.케네디 대통령의 명언과 함께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너는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너의 20대 일부 중 2년을 허무하게 낭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병역을 피하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주변 말만 듣고 2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당초 살 안찌는 체질을 빌미삼아 그냥 저체중인 상태로 살아가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네이트는 당시 미국 특전사 Navy seal 부사관이었고 비록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시민으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 지원했지만 누가 봐도 자신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피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꼭 한국으로 파병와서 한국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트와의 대화에서

단순히 저체중이라는 이유로 보충역으로 가야 하는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해외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혀도 내가 태어난 곳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며, 어디를 가도 나는 ‘대한민국인’ 인 것이다. 갑자기 여태껏 잘못 생각하고 행동해 왔던 병역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현역으로 입영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간의 시간을 웨이트트레이닝과 함께 살찌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음식 섭취를 반복하여 2013년 5월 22일 186cm에 56kg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판정을 받으며 병무청에서 축하한다, 장하다,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말해 줄 때 웬지 모르게 마음 한 편에서 자부심으로 으쓱됐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두 나한테 “바보 같은 선택이다. 편하게 그냥 사회복무요원 하지, 왜 군대 가냐?”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고 몸 조심하 다너오라는 말을 해줘서 없던 애국심이 조금씩 타오르며 뭉클해졌다.

2014년 5월 20일, 306보충대로 입영을 했다. 내가 선택한 날짜에 자발적으로 입대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이미 흥분해졌다. 2,500여 명의 청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맨 앞 마이크와 주목을 받는 곳에서 1인 대표로 입영선서도 하고 가장 자신감이 넘쳤다. 이 순간만큼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임무를 마치려고 직접 선택해서 왔기 때문이다.

훈련소와 자대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훈련과 작업에 매사에 열심히 임하였다. 물론 모두가 걱정했던 체력적인 요소는 훈련과 작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2년을 허공에 날릴 것만 같던 군 생활이 생각보다 자기 계발시간이 많이 주어져 틈틈이 스페인어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스페인어에 눈 뜨기 시작했다. 내 자신에게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특히, 우리 친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다. 부서관 출신이자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께 신병 위로휴가 때 군복을 입고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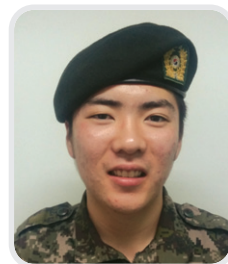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평생 아버지에게도 안보여주시던 6.25 참전 시 받으셨던 훈장들과 사진들,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 분이 기쁘게 알려 주시는 옛 군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감정에 복받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대로 배치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차포 사격장인 승진훈련장에서 제1대 훈련장 관리대 병사로 복무하게 되었다. 훈련장의 생활은 생각했던 군인 모습과는 한참 멀었다. 평생 보지도 못했던 군사용 장비들과 그에 해당되는 제원들을 공부하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장을 소규모 부대원들로 관리를 하는 등 비전투 부대만의 고충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승진 훈련장에서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욱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비록 내가 그리던 늠름한 전투군인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여기서의 생활 또한 하루하루 특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활도 무사히 잘 보람차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처음에는 면제자들이 부럽고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다른 사유로 군대를 안가도 되는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는 전문 하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전혀 관심 없었던 대한민국의 뼈아픈 역사와 분단 국가의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단점을 고쳐서 앞으로 나갔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대에서의 2년은 20대만 놓고 본다면 20%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3%도 안된다. **아까운 20대에서의 2년은 20%의 청춘이라고 외치는 청년들, 군 면제자를 칭하는 신의 아들들, 그런 생각보다 자신의 쓰라린 상처와 단점을 극복해서 인생의 3%를 조국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 분이 진정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된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빠빠용



1포병여단
상병 신 기 수

1년 전, 심실중격결손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회의감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 없이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 늦은 밤에야 퇴근하시는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쳤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신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아버지는 내가 어린아이였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국방의 의무를 질 나이가 되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말씀하셨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너도 자라면 가족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아들이 군대에 간다니 뿌듯하신 것 같았다. 경찰직에 몸담고 계신 아버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셨고, 그런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다. 갑자기 아버지께 부끄럽고 죄송했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기에 무겁게 입을 뗐다. 술기운으로 붉어진 얼굴은 부끄러움에 더욱 달아오르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는 기색 없이 “그럴 수도 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어찌겠냐”며 다독여 주셨다. 그날 밤, ‘심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을 지키지?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두려움과 타협하느라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난생 처음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다.

다음날,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세 곳의 병원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헛걸음이 계속되자, 괜한 오기로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도 같은 답변이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또 다른 병원에 들어섰고, 그 곳에서 나와 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얼마 뒤, 병무청 재신체검사를 받아 당당하게 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간 쌓여왔던 답답함은 “입영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시간이 흘러 찾아온 입대 날, 남들은 가기 싫어 안달인 곳을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이상한 놈이라는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응원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306보충대로 향했다. 그토록 원했던 입대의 순간, 자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같이 입대하는 전우들과 함께 ‘이제 정말 시작이다’ 생각하며 엉성하지만 당당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마구 솟구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군복무를 잘 마치고 멋진 아들이 되어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며 부모님을 떠나보냈다.

입소 첫날, 긴장의 연속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어느새 취침시간이었다. 군대에서의 첫날 밤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까지 누구 하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입소대대에서 보급품을 받고 신교대로 이동한 뒤, 조교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익숙지 않은 군가를 부르며 제식도 맞춰 다니고,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차차 배워나갔다. 팀장이었던 나는

같은 분대의 팀원들과 서로 다독이며 필수 전투기술인 사격훈련을 이수하고, 악명 높은 화생방 훈련까지 무사히 수료했다. 그렇게 병 기초훈련이 끝나고, 우리팀은 화생방 교육 최우수 분대로 뽑혀 포상전화로 1분간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보다 힘들고 긴 훈련을 받으셨을,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별 일은 없으십니까?” 안부를 물으니, 집 걱정은 말고 내 걱정만 하라고 하셨다. 나는 통화 내내 우는 것을 들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다. 드디어 훈련병에서 이등병으로 거듭나는 수료식 날, 부모님께 어엿한 군인의 인사법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득 담아 “충성” 경례를 했다. 부모님은 군번줄과 이등병 약장을 달아 주시고, 수고했다며 꼭 안아 주셨다. 그리웠던 부모님의 살내음과 감촉에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자대에 전입 와서 처음 보는 체력검정에서 3급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오래달리기에서 절반도 채 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그 날부터 체력단련시간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평소 잘 하지 않던 축구에도 참가하면서 체력은 물론, 전우들과 선임들과의 관계도 함께 쌓아갔다. 한 달 뒤, 두 번째 체력검정에서 2급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몇 주 뒤엔 1급 전투프로를 받아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단 부딪혀 보자!’는 자신감과 내 한계를 이겨냈다는 성취감을 얻었다. 또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다. 부대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못 오실 줄 알았던 할머니와 부모님은 떠돌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한걸음에 달려 오셨다.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5인6각, 줄다리기, 닭싸움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번 체육대회에서 낮은 순위였던 우리 부대는 1위를 차지했고, 아버지는 대대에서 상까지 받으셨다. 나이가 들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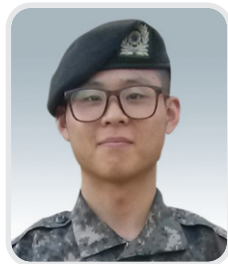
아버지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오랜만에 아버지와 맘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행복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외박을 나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아버지와 술자리를 가졌다. 아버지는 “네가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원해서 군대에 오고 또 의젓하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좋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시던 분이셨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나 역시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도전의 대상으로 막연하게 느껴졌던 군대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인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해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되새기게 해 준 소중한 곳이 되었다. ‘뽀뽀옹’은 불어로 ‘나비’를 말한다. 애벌레 때의 자유를 뒤로 하고 스스로 번데기가 되는 용기, 번데기 속에서 긴 시간을 버텨내는 인내, 번데기를 벗고 바깥 세상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도전정신을 모두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 ‘뽀뽀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는 군대를 통해 번데기로, 나비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인내를 얻었다. 이제 아름다운 뽀뽀옹이 되어 날아오를 자신이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군대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입선작

158

7163 부대
일병 오 유 빈

“두려워 하지 마라, 스스로를 믿는다면” 이 문구는 나의 좌우명이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 최고 단신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징병신 체감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키가 현역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작은 키로 놀림을 많이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키가 그렇게 작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 “남들 다 클 때 뭐했니?”라며 선입견으로 나를 판단했다. 귀엽다고, 동생 같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일도 많았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갈수록 장난이 심해졌고 장난이 심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머리에 손을 대도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내 키는 158cm였다.

신체검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선 순간, 아버지는 신체검사를 잘 받고 왔냐고 물으셨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해 결국 며칠이 지나서야 말씀드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해병대를 지원했지만 키 때문에 입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때 키가 작은 자신을 자책하며 훗날 자식에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원하셨다고 했다. 축 처진 아버지의

어깨를 보면서 지금까지 사실을 숨기고, 나보다 더 나를 걱정했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한 게 죄송했다. 아버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며, 재신체검사를 말씀해 주셨다. 나는 바로 재검을 신청하고, 매일아침 체조와 조깅, 식이요법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재신체검사를 받던 날, 신체등급이 나오는 자리에서 짧지만 긴장이 된 순간, ‘3급 현역’ 안내멘트가 나왔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재검을 마치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현역이에요!”라고 말하니, 아버지는 그제야 웃으시며 나를 안아 주셨다.

몇 개월 후 운전병으로 군 입대를 했다. 연병장에 먼저 와 있는 동기들을 보니 내 자신이 더 작게 느껴졌지만, 여기 그 누구보다 군대에 오기 위해 노력했기에 당당하게 연병장에 들어섰다. 그러나 군복의 최소 사이즈가 168/70 밖에 없다는 사실에 순간 우울해지기도 했다. 군용물품 판매소에서 수선할 수 있다는 조교의 말에 애써 위안하며 군용물품을 수령했다. 306보충대에서의 짧은 3일이 지나고 수기사 신병교육대로 전입을 갔다. 아직 몸에 맞지 않는 군복과 모양이 잡히지 않은 베레모가 어색했지만 꽤 적응을 했다. 신교대의 꽃이자 훈련의 마무리는 역시 행군이다. 20kg인 완전 군장을 메고 30km를 걷는 훈련이다. 당시 몸무게가 50kg이었는데, 내 몸무게의 절반인 군장을 메고 걸을 때면 키가 0.1cm씩 작아지는 것 같았다. 20km 정도 걸었을 때쯤, 한 두명 씩 열외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완주했다. 행군을 완주한 동기들과 연병장에 누워서 본 밤하늘은 그 어떤 밤하늘보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훈련과 제3야전수송교육대에서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7163부대, 내가 앞으로 1년 6개월간 생활할 곳이다. 3개월 동기제와 동기

생활관으로 자대에서의 적응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군생활의 위기는 꽤 빨리 찾아왔다. 나는 키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박혀 있었는데, 날 아끼는 선임들은 그걸 모른 채 식당이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기 일쑤였다. 군대이고 선임이기에 참아오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던 중, 날씨도 덥고 운행 때문에 피곤한데, 하필 점심 식수조사 당번인 날이었다. 그런 나를 보고 지나가던 동기가 고생하라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다. 순간 욕한 마음에 “아, 머리 만지지 말라고!”라며 소리치고 말았다. 순간 병영식당엔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느새 동기는 물론 부대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친구는 머리 한번 만진 걸로 화를 내냐며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동기는 머리 쓰다듬는 것을 싫어하는지 몰랐다면 사과했고, 싸늘한 눈초리가 아닌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는 부대원들을 보았다. 나는 내 트라우마를 말해 주었고, 부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 이후로 사회에서 키에 대한 놀림을 받았던 기억들을 잊고, 나를 괴롭히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동기는 물론 부대원들과 더욱 친해졌다. 그리고 자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개인정비 시간도 늘어났고 자격증 준비, 여가생활, 동아리활동, 체력단련 등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내 특기를 살려 이발병을 하고 있으며, 미용자격



중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머리 만지는 것을 싫어하던 내가 지금은 이발병을 하고 있다니 참 아
이러니한 상황이다. 나는 오히려 사회에서 보다 군대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트라우마
를 극복하고 내 특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손에서 핸드폰이 사라지고 눈에서 TV가 멀어질수록
내 삶은 더 윤택해지고 나는 성장했다. 더불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불행을 돌파하는 의지,
역전을 이끌어 낼 투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재도약하는 승부근성을 배웠다. 영국의 정치가 윈
스턴 처칠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
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내가 만약 모든 상황에서 군대에 온 것을 후회하고
포기했다면 여전히 시간에 갇혀 땅만 보고 살았을 것이다. 미필자들은 말한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저 쓸모없고,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군대에서 보낼 2년
에 가까운 시간이 암담하고 막막하게 다가올지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이순간,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잠시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두려워 하지 마라, 스스로를 믿는다면.”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형제 인터뷰

 병무청 블로그 어머니 기자 김용옥

대한민국으로 착륙한 두 형제



연년생인 형(이우현 22세)과 동생(이도현 21세)은 이륙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착륙했다. 두 형제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당당히 대한민국을 찾은 청춘들이다. 기자는 안양에 위치한 수도 군사령부에서 동생 도현 군을 데리고, 형이 복무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17사단으로 향했다. 도현 군과 동승한 3시간 동안 처음 보는 병사가 아닌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

17사단에 도착하여 도서관에서 형 우현군을 만나게 되었다. 서로 닮은꼴이면서도 다른 매력으로 나를 놀라게 한 두 형제는 부모님을 떠나서도 거뜬하게 버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면회를 오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과 면회를 받아보지 못했을 형제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고 두근거렸다. 우현군 동기들과 선임, 선·후임, 그리고 동생 도현군까지 한자리에서 금방 어우러져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기자의 기습 질문에도 망설임이 없다.

 김용옥 우현군의 최우수상 수상소식에 부대의 반응은 어땠나요?

 최준찬 정호과장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현군의 경험을 토대로 각 군 장병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인터넷 홍보 보다는 각 부대에 포스터로 홍보하여 군 장병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선·후임이 말하는 우현군의 군대 에피소드를 들어봤습니다.

원민성
동기

우현이가 이등병 시절에 책을 보려고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그 곳에서 내복만 입고 있어 모두 놀라서 혼란 적이 있습니다. 그 곳은 병사들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라 별도의 편한 복장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우현이가 내복만 입고 있어 부대 사상 최초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정재
동기

자대배치를 받고 2주 대기 중에 적응기간이 있었는데, 대개는 선임들 눈치 보느라 사실 그 시간이 더 어려운 기간임에도 우현이는 책만 보는 군데말로 빠진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당당한 시간을 보낸 거죠.

최원창
후임

오늘 인터뷰 온다는 말에 근무시간을 바꿨습니다. 영주권 병사가 왜 입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함께 군 생활을 하다 보니 멋진 마음을 가진 선임이라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김동현
분대장

1년을 함께한 우현이를 보면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집중력도 높고 도전정신이 대단합니다. 이번 체훈수기를 준비하는 것도 보았는데 최우수상을 타게 되어 저도 같이 기쁩니다.

형제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김용욱

친구들과 함께 동반입대하는 것은 봤지만, 형제가 같이 입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대한민국 군인으로 입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이우현

동생 도현이가 의젓하여 걱정은 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훈련소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혼자 아니고 동생이 옆에 있다는 것에 많은 의지가 되었고, 서로가 챙겨주는 마음이 있어 형제 동반입대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륙은 새로운 도전이고 착륙은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다운 곳에 오는 것이니 군 복무가 이륙과 동시에 착륙이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 부모님께서도 지금에 와서는 두 아들을 함께 군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도 같네요. 한 번에 군 입대를 시켜 걱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니 다행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도현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김용욱 현재 군 생활은 어떤가요?

이우현 이도현 입대할 때만해도 ‘군 입대 선택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선택이 최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도 좋고 선임들도 잘 해주었고 군 생활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상병인 지금은 10월이면 분대장을 하게 되는데 분대장파견 교육과 인수인계 과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무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분대장을 어떻게 해야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기도 하구요.

Interview

김용욱 > 와~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전역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우현 > 군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역하고 학교를 마친 다음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정재 친구와 함께 음악도 하고 예술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욱 > 동생 도현군의 군 생활은 어떤지 알고 있나요?

이우현 > 일병에서 상병을 달면 인정을 받는 병사들에게 약장을 전달하는데 동생은 몇십 개씩이나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동생이 군 생활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칭찬은 못 해줬습니다.

김용욱 > 군 입대를 꿈꾸는 영주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우현 이도현 > 이륙은 새로운 도전이고 착륙은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다운 곳에 오는 것이니, 입대하게 되는
후배들도 군 복무가 이륙과 동시에 착륙이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우현군과 동생 도현군은 헤어지는 시간까지도
의젓하고 든든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전우들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병무청 블로그 어머니 기자 옥연희

태평양을 건너온 쌍둥이 형제



재외동포 700만 시대, 세계 곳곳 교포들이 사는 곳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그들의 뿌리라는 생각은 어디 갈 리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조국입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원입영자의 수가 늘어 최근에는 연 5백여 명 정도가 군 복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에는 미국 영주권이 있는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군복무 중이라 화제입니다. 흰찰한 키의 미남인 심우현, 우석 형제(22세)가 그 주인공. 녹음이 우거진 영내에서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패트릭과 앤드류라는 미국 이름을 내려놓고 학업도 중단한 채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실제 군 생활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옥연희 군대 가야 철든다고는 하지만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 꼭 입대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군 입대를 지원한 계기가 듣고 싶네요?

 심우현 심우석 같은 대학에 다니는 군 복무를 마친 유학생 형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군 복무는 의무이자 권리이고 특권이니 갔다가 오는 게 낫다고요. 미국에 살지만 한국 TV 뉴스를 통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군대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잠시 망설이 기도 했지만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의 삶을 위해 복무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옥연희 한국말 잘 하는 걸 보니 미국에서도 계속 우리말을 썼나 봐요? 군 입대 결심에 대해 부모님 반응은 어땠는지요?

**심우현
심우석** 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이 있지만, 한국 군대에 갔다 왔으면 하셨고, 어머니는 저희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논산에서 5주 신병훈련 마치던 날 두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어머니는 “잘 마쳤다.”고 하면서도 많이 우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간 이후 집에서는 우리말을 쓰고 또 방학이면 한국에 와서 문화체험도 했기에 우리말을 잊진 않았습니다.

옥연희 막상 군대 생활을 해보니 어떤지요? 5월 초에 자대 배치 받았으니 짧은 군 생활을 한 것이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또 즐거웠던 일도 소개해 주십시오.

**심우현
심우석** 한 번은 상관이 “머리가 길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냥 무시하 넘겼습니다. 머리가 길다는 말은 ‘두발정리 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분대원 외출을 나가 다 같이 영화 보고, PC방도 가 놀았던 게 즐거웠습니다.
또 부대에서 운동도 하고 동전 노래방이 있어 노래도 부르고, 선임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따뜻하게 충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육연화

대한민국 군 생활 중에 가장 크게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왔다'는 것이 있는지요?

심우현
심우석

계급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큼니다. 밑바닥 이병부터 병장까지 겪을 테니 우리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경험도 합니다. 군사훈련도 그렇지만 취사장 청소나 제초작업 그리고 삼질(웃음) 등. 힘들 때 선임이 음료수를 사줘서 고마웠고, 한국의 정(情) 문화도 느꼈습니다.



패트릭과 앤드류라는 미국 이름을 내려놓고
학업도 중단한 채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

집을 떠나 멀리 와 군생활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든든합니다.

같은 부대에 있지만 생활관이 달라 형제는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장난기 섞인 대화가 오고가는 모습이 다정합니다. 대학에서 한국인 여친을 만났다는 형과 걸그룹 AOA를 좋아하고, 사관다면 한국

Interview

옥연희

해외 거주 청년들 가운데 입영희망원 제도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다면요?

심우현
심우석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기에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군대 안 온다고 나쁜 놈인 것도 아니지요. 군대 와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배울 것도 많고, 해외 파병의 기회도 있으며, 취업에도 도움이 될 테니 잘 생각해보고 자기 주관대로 정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결심했으면 대한민국 군대, 안심하고 와도 됩니다.

용기로 선택한 그들의 군생활이
조국을 알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좋겠다는 동생. 미국에 살았어도 이 땅 청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공모전>에 도전했고 틈나는 대로 책도 읽는다는 두 형제, 군 복무 기간을 보석 같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용기로 선택한 그들의 군생활이 조국을 알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희망메세지

「군생활 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195편의 원고 중 군 복무 선임이 미래의 후임에게 전하는 희망메시지를 모았습니다.」

1 rights come with responsibility

일병 윤찬혁(〇〇사령부)

중국, 인도처럼 인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돌아오는 그런 땅이 되도록 내 모국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품은 나에게 군대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중략) 남한산성 정상에 올라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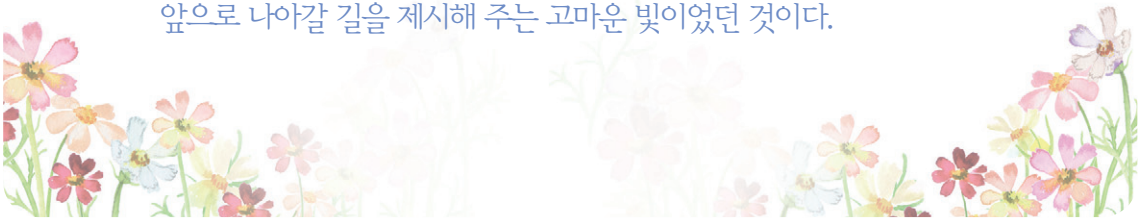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입대를 했구나.
또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산 높은 곳에 성벽을 쌓았구나’ 생각하니
군 생활이 내 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임을 느꼈다.

2 어느 한 일병의 항해

일병 한승엽(〇〇사령부)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은 배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용히, 또 거대하게 다가왔다. 나는 2014년도 막바지에 군 입대를 결정했다. 고고하고 본질적인 이유를 찾겠다고 자부하고선 이렇게 도망치듯 군 입대를 결정하다니 참 아이러니했다. (중략) 군 입대란 커다란 압초도, 거센 풍랑도 아니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등대’ 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박하여 쉴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고마운 빛이었던 것이다.



3 자카르타 현지인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로

일병 장성필(○○사단)

한국문화에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군대문화를 벌써 접해야 하다니. 입대를 권유한 아버지에게 빼돌어진 원망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나는 보통 한국인과는 달라서 적응을 못할 거야.’ 같은 비겁한 합리화가 낳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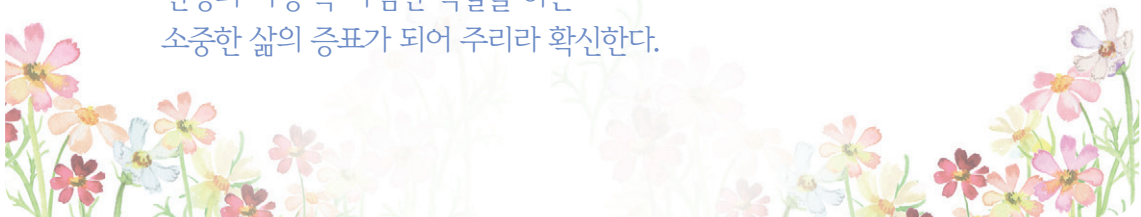
담금질을 통해 단단해지는 무쇠같이 군 생활 동안 있었던 시련들을 통해 어느새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4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상병 박 헌(○○사령부)

영주권 병사로 군 생활을 하며 ‘나는 다르다’거나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조직의 공동체 생활에서 독이 되고, 때론 정체성 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중략) 나는 다른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처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는 점이 더 자랑스러웠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되리라 생각한다.

영주권자 병역이행의 수식어는 단지 ‘선택’의 의미를 넘어서
인생의 여정 속 나침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삶의 증표가 되어 주리라 확신한다.



5 올바른 특권의식이란

일병 고예찬(○○사단)

군 입대를 결정한 후 특권의식으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었다. 내가 바랐던 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어학이나 행정 관련 보직을 부여 받아 비교적 편안한 군 생활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보직은 김포의 강안경계부대의 초병이었다. (중략)

대한민국의 군인이 된 이상 나는 다른 전우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이유는 결코 없으며, 남들도 나와 같은 기간을 바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큰 기회이자 특권이다.

6 같은 뿌리

일병 김도현(○○사단)

“힘들지는 않았어?” 이윽고 이어진 짧은 한 마디에, 뿌리가 머릿속에서 가슴께로 내려와 심장을 움아맸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다. 아버지의 시선 속에 가득한 그 무엇. 그건 믿음이었다. “힘들었겠지. 그래도 너는 잘 해냈잖아.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은 믿음. (중략) “힘내, 우리 아들. 아빤 중국에서 살아온 네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으로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난 깊게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아버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더 이상 그의 믿음이 두렵지 않았다.

7 돌아온 소나무

상병 김용준(○○사령부)

뉴질랜드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와 직장을 병행하며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1년의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14년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한 뒤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략)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와 내 부대의 전우들이 자랑스럽고, 전우애를 쌓아가며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정들어가는 선·후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8 겨울에 돌아오다

일병 남정우(○○사단)

베트남에서 11년 한국에서 9년을 살아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 국적을 얻는 것은 청춘을, 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 (중략) 그리고 모포를 세 장씩이나 쓸 수 있던 이유는 동기들이 뭘 그리 추워하냐며 자기 것을 내게 가져다 줬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무언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 들었다. 목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다 토해내는 기침은 없었다.

내 생각엔 한국이 드디어 날 받아들여준 것 같았다.
나는 군대에 입대하여 한국으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9 홍콩 사람이 입대를 했다

일병 강모관(○○부대)

자원 입대를 결정하였지만 첫 시작인 훈련병 생활부터 나는 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어로 의사표현도 완벽히 못하는 나는 의욕만 넘쳐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소대장 훈련병을 지원해서 다른 훈련병들에 비해 두 세배는 더 바빠 움직였다. (중략) 중대원들은 영어공부 할 수 있겠다며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만을 좋아했던 소심한 내가 지금 이렇게 긴 글을 쓸 수 있고, 활력 넘치는 성격을 되찾으며 중대원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10 인생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진짜 성인’으로 나를 성장시켜 준 대한민국 군대

일병 조동훈(○○사령부)

미국 시민권이 있음에도 학업을 쉬면서 어학병으로 자원입대를 하겠다는 나의 결정을 부모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다. (중략)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달려왔던 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군대에서의 다양한 훈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참고 이겨내는 경험들이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11 이방인

상병 조태호(○○사단)

열한 살에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유년기를 보낸 나에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은 ctrl+A, Delete된 상황이었다. (중략) 이등병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낯은 일이나 작업을 할 때 '나다 싶으면' 바로 뛰쳐나갔다. (중략) 나는 볼리비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걸도는 이방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무를 마치면 그 이름에 걸맞는 한국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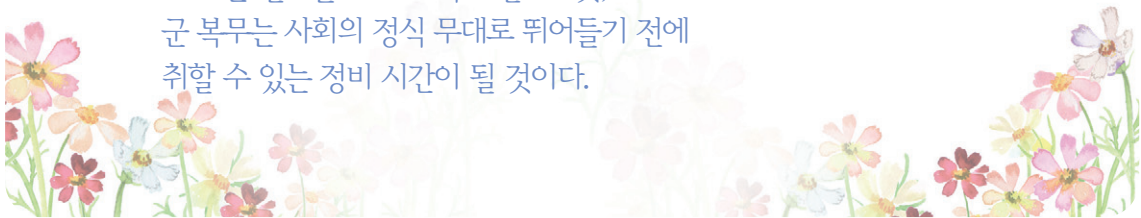
100여 년의 인생 중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언을 수 있는 것치곤 엄청난 흑자라고 생각한다.

12 삶에 스며든 21개월의 참의미

일병 김도식(○○부대)

이등병 시절 나는 업무 시간 내내 우왕좌왕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종교행사 때 만난 목사님은 많은 후임병들이 실수하고 혼나는 건 단지 그 일이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이지, 결코 어디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하셨다.(중략) 군 복무를 하는 21개월은 정지가 아닌 일시정지라고 들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듯,
군 복무는 사회의 정식 무대로 뛰어들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정비 시간이 될 것이다.



13 후회하지 않는 선택

상병 정수형 (공군〇〇전대)

학교를 다니면서 딱히 한국어를 쓸 필요성을 못 느꼈고, 한국인들도 나를 한국인으로 여기지 않아 그들과의 거리도 계속 멀어져 갔다. 그러나 훈련소 시절 동기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한국어를 연마했고 내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중략) 입대 전의 나는 불안, 걱정, 그리고 아쉬움에 가득찬 소년이었다.

복무 10개월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14 12시간 18,968.37Km

일병 홍필화 (〇〇사단 포병연대)

30년 동안 살아온 아르헨티나를 떠나, 대한민국에 오기 위한 결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고민 끝에 결심한 일이었기에 늦은 나이에 나의 뿌리인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중략) 힘든 훈련이 이어지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군복을 입고 있었을 그들을 상상하면서, 나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간의 발전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나는 나의 역사가 나의 부모의 역사 또 그들의 부모의 역사와
연결되었다고 느꼈고, 그것은 나에게 큰 보람으로 느껴졌다.

15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일병 장진혁(○○사단)

습관처럼 배어있는 ‘다나까’의 실수 때문에 받는 열차려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떠올랐다. “진혁이 니가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을 자랑스러움으로 바꾸겠다는 내 약속을 떠올리며 버텨낼 수 있었다. (중략) 훈련소 시절 소대장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여러분이 이곳 대한민국 군대를 거치며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사격기술도, 전투술도 아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전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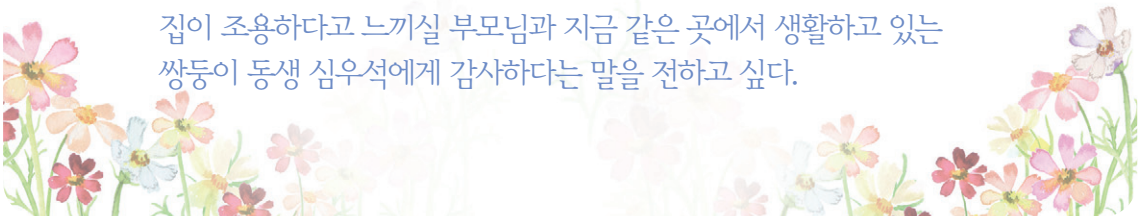
나는 벌써 200명이 넘는 전우들을 얻었다.
그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16 20대의 내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하고 후회없는 선택

일병 심우현(○○사단)

“우현아, 우석아. 너희들은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아빠는 너희들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는 게 맞다. 2년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울 것도 많단다.” 그렇게 우리 쌍둥이 형제는 같은 날 입대를 결정했다. (중략)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게 해 준 선임 및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군대를 보내서 집이 조용하다고 느끼실 부모님과 지금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쌍둥이 동생 심우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7 5월의 아메리칸 쌍둥이

일병 이상원(○○사단)

2015년 5월 보급중대에 신병 두 명이 온다고 한다. 심우현, 심우석 아메리칸 쌍둥이. 분대장인 나는 쌍둥이가 군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눴다.(중략)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많이 다른 이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3주는 다른 사람의 석 달보다도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극복해 냈고,
군 생활에 적응했으며,
스스로 군 생활의 가치를 깨달아 가고 있다.



1 군대 이곳은 나비가 되기 위한 누에고치

상병 김태선(○○사단)

가끔 후임들이나 동기들이 군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말한다. “나는 군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천식으로 항상 힘들어하고 평균 이하의 체력과 극도의 소심한 성격, 뽕깡처럼 뒤통뒤통 걷던 걸음걸이, 육중한 체중.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눈에 생기 없이 살아가던 나는 군대에서 눈에 생기가 생겨났고,
하루하루를 뜻있게 보내고 있다.

2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군대

일병 이완준(○○보병사단)

110kg에 육박한 몸은 운동을 하기에 체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힘들 때마다 포기라는 달콤한 유혹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간절한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30kg이라는 무게를 감량하게 되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군에 입대하겠다는 집념은 나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3 나를 바꾼, +하는 시간

상병 이우재(○○사단)

현역병으로 자원해서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영하 10도 이하의 산 속에서 잠을 자며 훈련을 하기도 하고, 행군을 하며 체력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극한의 순간에서 내 자신을 직면하며 이겨내는 일은 사회에서의 어떤 경험으로도 얻기 힘든 기회일 것이다. 또한, 총과 포를 쏘고 관리하는 방법, 나라를 지키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 근무를 서며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키는 임무를 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 더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4 자원병역이행에 대한 생각

일병 박지호(○○사단)

자대 전입 후 영단어를 2000개 가까이 외우는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개인정비는 물론 연등까지 실시하면서 노력했던 한국사 공부는 5월에 실시한 제27회 한국사 능력검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결국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 하나를 이뤘으면 다른 하나도 이룰 수 있다.

내 꿈을 위해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여 알찬 군 생활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5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일병 임형우(○○사단)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장님의 지휘 하에 하나가 되어 누구하나 다친 사람 없이 불을 끄고, 부대에 남은 사람들은 작전 중인 인원들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군인이고, 전우애라는 것을 느꼈다.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로 단결해서 일을 수행해 나간다면, 어떤 큰일이라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부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커가면서 그 자부심과 애정은 나아가 내가 군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갔다.

6 국방의무의 소중함

일병 남윤성(○○행정학교)

‘훈련이 힘들까봐, 선임이 괴롭힐까봐, 모르는 사람과의 생활이 두려워서’와 같은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군 입대를 꺼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겪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막연한 두려움에 벽을 치고 산다면 평생 동안 짧은 인간관계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이 있듯이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다. 오르막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 봐야 내리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다.

7 나의 군 체험 수기

일병 한큰외(○○사단)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군대 올 때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단 부딪쳐 보자’라는 각오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치면서 생활하다 보니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직도 인간관계에서 서툰 점이 있지만,
많이 배우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더 나은 나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8 대한민국 0.1%

상병 이현창(○○사단)

처음 DMZ의 경치를 본 순간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영광이었다.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의 첩첩강산과 북한강이 흐르고, 인간의 손에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했다.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꼭 이 경치를 얘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항상 존경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다.

9 꿈의 발판 쌓기

상병 조수현(〇〇사령부)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후임이 나와의 상담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나서, 상담병 직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담사라는 꿈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일이든 상대방의 일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나의 꿈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0 현역입대 내 인생의 전환점

상병 조창희(〇〇지원사령부)

‘지금 내 건강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현역 군 입대의 희망을 갖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척추측만증 교정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과정을 끝낸 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다시 병무청에 가서 재검을 받았다.

결과는 3급 현역 판정.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무언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11 나를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

상병 홍진혁(○○사단)

입대를 하고 나서 건강소대에 배정되어 남들보다 덜 먹고 더 뛰는 생활을 시작했고, 열심히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했다.

비록 100kg이 넘는 몸과 약한 체력, 각개전투와 행군 등 힘든 훈련 속에서 몸은 녹초가 되어갔지만, 나를 사회적 약자가 아닌 함께 데려가야 할 전우로 생각해 준 훈련소 조교들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인해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할 수 있었다.

12 남들과는 다른 나의 입대스토리

상병 공성복(○○사단)

어느새 일병이 되고, 어느새 또 상병이 되었다. 이때까지 시간이 지나간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또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그동안 참 많이 배웠고, 입대 이전에 가지지 못한 가족애와 위, 아래 사람들을 대하는 사회생활 방법, 그리고 전역 후 건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정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13 위기를 잘 살려야 강해진다

상병 김수현(○○사단)

군 생활이 걱정 되겠지만, 걱정한다고 나아지는게 없으니 부딪쳐 봐라. 군 생활이 모든게 좋으면 좋겠지만, 위기는 찾아온다. 그 위기를 잘 살려야 경험이 쌓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이다. 힘들 때는 혼자 앓고 있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하자.

반드시 누군가는 널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군 생활을 하고,
보람차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심사총평

영주권 병사 부문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유년 시절부터 외국에서 성장한 해외이주자가 병역의무를 택한 동기는 각기 달랐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언어와 현실의 난관을 극복한 군 체험 사례는 가히 눈물겨운 승리이다.

그래서 문장 구사력의 변별보다는 감동, 그 자체를 눈높이로 삼았다. 전체 응모작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좋았으나, 공모 요강이 제시한 자원 입영 및 병영 체험의 공감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담담하게 작품을 완성한 이우현 씨의 '이륙과 착륙 사이에 서다'를 영주권 병사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질병치유 병사 부문

신체적 불편함을 마다 않고 병역의무를 자원한 책임감은 청년 정신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군대에 입소한 헌신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질병치유 부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이 작품들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가독력도 촉발시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응모자들의 성장과정과 질병 치료 노력을 참작하여 진실성과 공감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중 최성원 씨의 '나는 대한민국 남자다'를 질병치유 병사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가난을 극복해 가는 의지와 용기, 그러면서도 조국과 국방을 앞세우는 애국심이 돋보였다.

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자원병역이행 병사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고백한다. 비록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수기 공모에 응모해 준 자원병역이행 병사들과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두에게 한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심사위원 시인 **여 윤 동**, 소설가 **최 성 배**

자원봉사 대한으로

자원봉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발 행 인 병무청장 박창명
편 집 인 입영동원국장 임재하
발 행 일 2015년 8월
발 행 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 481-2756 Fax. 042) 481-2979
www.mma.go.kr
제 작 창진인쇄사 Tel. 042) 624-9220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실에
진정 자부심을 느끼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입대를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말해주고 싶다.
입대는 누구에게나
이룩과 동시에 착륙이라는 것을...

영주권 병사 군생활 수기 中

대한민국 대한으로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5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